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崔演達

現在의國際政局은 二大陣營에分裂

英外相、그危險을提携코新平和處理案陳述

西國代表 叛軍援助事實을指摘

【쥬네브廿五日發同盟】聯盟總會는 廿五日午前十時半 議長라바스氏司會下에 今期總會最初의一般討議를 開始하엿다. 이에앞서 前般幹部會에서決定한 決議案을 上程하야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그리고

一、聯盟規約改革案及 이에關聯된 一九三三年 南米諸國의不侵略國協定에關한 檢討

는 一般討議가終了되기까지 延期하엿다 다음에 英國外相이든氏는 一般討議의先陣을바다

現下의國際時局은 極히陰慘하다 그리고 各國政府가 努力하면 戰爭은 未然에防止할수업는理由는업다 現在國際政局은 二大陣營으로 分裂될徵兆가잇다 이것은 甚히危險하다 英國政府는 어데까지 聯盟에忠實하기를 期하는바이다

라고 前提하고 英國政府의新平和處理案을 大要左와如히 述하엿다

一、聯盟規約을 베르사이유平和條約에서 切離하야 平和機構의改善에 資할것

一、資源交換과 通商의圓滑을期하기爲하야 國際條約을 締結할用意가有함

一、英國政府는 軍縮會議再開를主張한 佛國政府의 提案에贊成하야 一般的 軍事條約에協力할用意가 有함 但眞正한軍縮에는 道義的軍縮을 伴할것을 前提로함

二、英國政府는 西歐諸國間에地方的 安全保障條約을 締結할用意가 有함 但右條約案은 聯盟規約에 準據할것과 또聯盟理事會及 總會에서 修正을 加할것을 條件으로함

以上 이든英外相의 演說에對하야 西班牙外相 델바에氏는 諸國의 叛軍援助現狀에 對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各國의 內亂에 對한 嚴正不干涉이 實行되지안코 叛軍은 大量의 武器 軍需品의 供給을 受하고잇다 이일만업스면 內亂은 速히 鎭壓되엿슬것이다 그러나 西班牙政府가 結局 最後의 勝利를 博할것은 틀림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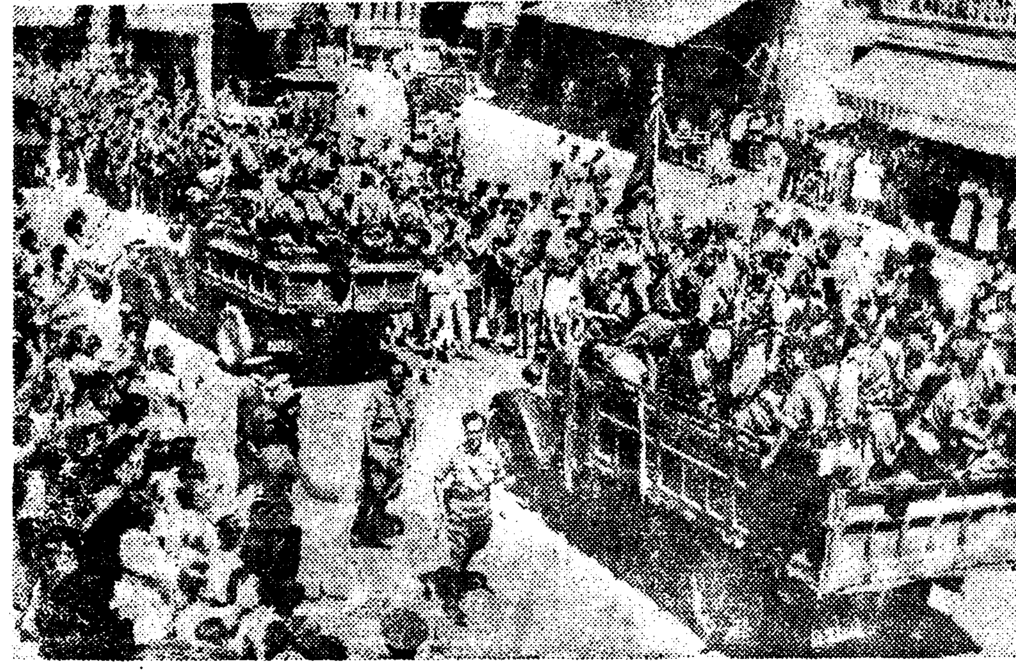
佛國議會召集

【巴里二十五日發同盟】佛國政府는 二十八日議會를召集하고 "物價均衡協定"에對하야 兩院의協贊을 求하기로決定하엿다 議會는 二十九日正午까지 協贊을完了할모양이다

天皇陛下室蘭着御

【室蘭電話同盟】北海道에서 展開될 陸軍特別大演習御統裁와 地方行幸次로 去二十四日東京御發途 海路北海道에 錦旗를 進發하압신 天皇陛下께압서는 二十六日 早朝 三百萬道民의 熱誠에 넘치는 奉迎裡에 御志어시 室蘭港에御入港 天機御麗하압시게 御上陸 北海道에玉步의第一步를印치시엿다 이보다압서 室蘭棧橋에는 寺內陸相 潮內相 前田鐵相 小川商相 池田北海道長官 杉坂大湊要港部司令官 中島憲兵司令官 竊岡室蘭市長을爲始하야 有資格者 約百名이 襟을正히하야 御待하엿다 午前七時頃 港外西方에 御召艦比叡가 浮城과如히 雄姿를 나타내엿다 驅逐艦野風以下四隻이 齊射하는 二十一發의 皇禮砲는 殷殷히 山海를壓하고 全員登舷裡에 御召艦比叡는 所定의 位置에投錨 陛下께압서는 同八時十分 御通常禮裝大勳位副章을 帶하압시고 再次皇禮砲裡에 天皇旗를揭한 御召艇에御便乘 湯淺內府 松平宮相 鈴木侍從長 宇佐美侍從武官長以下 御陪乘 二隻의供奉艇을 거나리압시고 同二十五分 諸員最敬禮裡에 棧橋에玉步를 印치시엿다 拜하매龍顏에는 些少의御疲勞하압신模樣도어시 奉迎者一同에게 御目禮를 下賜하압시면서 池田長官의 御先導로 御召自動車에乘御 鈴木侍從長御陪乘 沿道兩側에 整列한 各團體約二萬一千의 赤誠잇는 奉迎에 一一히 御擧手의 禮를 下賜하압시면서 日本製鋼所室蘭工場에 向하압시엿다

西班牙動亂畫報



叛軍側의 戰線에 有力한힘이된것은 摩洛哥兵의 勇猛한 土人兵 即무어族과, 무어族의 正規軍約五千을 前線에내세운데잇다 하다 寫眞上은 叛軍首領들이 우수업기때문에 무어人의 正規兵을 飛行機로 輸送하야오는光景, 同下는 下西班牙 안달루시아地方에서 과다라마戰線에 向하야 떠러올라고 出發하는光景……

日中關係의緊張에 英政府推移監視

駐日大使에게訓令코日本政府의眞意打診

一方不介入意思表明

【倫敦廿五日發同盟】成都事件以來 連續的으로이러나는 不祥事件에 日中兩國關係는 俄然緊張하게되는同時에 英國政府도 愼重推移를 監視하고잇는一方 日中兩國間의 關係에 介入할意圖가업는旨를 言明하는同時에 他方東京駐在클라이브大使에게 訓令하야 日本政府의 眞意를打診케하엿다고 確聞한다 同大使의報告는 二十五日倫敦에 到着하엿다하는데 英國政府도 日本政府가 果然 "適確한處置"를取하지안흘것이라는 斷案을 나리고 다시 陸海軍武官도 動員하야 情報蒐集에努力하야 事態의推移를監視하고잇다

中野氏襲擊顚末 嚴戒中에調査完了

【北海○○艦上二十五日久我特派員發】中野事件調査隊는 二十五日午前 午後二回에 亘하야 北海에上陸 中野氏의 遺族을保持하고잇는 遺族九名을 午後五時 軍艦○○에 收容하엿다 再昨日中國側은 日本記者團의 上陸을 阻止하엿스나 日本側의 嚴重抗議로 廣東政府當局의 指示를 仰하야 二名에限하야 上陸을許可하엿슴으로 記者團中 二名이 午後二時 調査隊와함께上陸하야 故中野氏宅에 赴하엿다 沿道의 商舖는 거의閉店하고 途中約五町間의 街路兩側을 廣東第百五十九師의 兵士가 武裝하고 堵列하야 調査隊의身邊을 警備하고 其背後에市民이 黑山과가티 몰려잇섯다 中野氏

蔣氏新指示밧고

吳、王兩氏南京에歸還

【上海二十六日發同盟】國民政府要人이 會議한 結果를 가지고 再昨日 廣東에 赴한 吳鼎昌、王世杰兩氏는 蔣介石氏와 面會하고 緊迫된 日中關係打開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고 蔣介石氏로부터 새로指示를바더가지고 今日飛行機로 廣東을出發、南京에歸來하야 國民政府要人에게 蔣介石氏의 意向을 傳하기로되엿다 그러고目下 蔣介石氏의 南京歸來는 언제될는지 決定되지못하엿다

大演習終了에따러 政局의緊張倍加

豫算編成의切迫에따러諸懸案의結末必要

陸軍、庶政一新을强要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二十八日午前十時上野驛發大演習陪觀에赴하기로되엿는데 이에압서 寺內陸相、前田鐵相、小川商相、潮內相、林法相의 歸京(아마來月十日頃)하기까지 定例閣議를一時中止키로되엿다 따라서 懸案의 電力國營問題는 勿論 大調査局設置問題、義務敎育二個年延長問題等은 一時停頓狀態에 陷하고 大演習終了後이等諸懸案은 來年度豫算編成切迫에 伴하야 엇떠케든지 結末지지안흐면 안되게되여 政局은 大緊張하게되엿는데 卽陸軍은 不退轉의 決意로서 庶政一新과 이에關聯한行政機構의改革을 政府에對하야 希望하고잇서 廣田首相手許에 右에關한進言書를 提出하야잇고 首相으로서도 이處置에對하야는 考慮치안흐면안될 立場에잇스며 또 電力國營問題에 關하야도 四相會議를 開하야 本問題에對하야 賴母木遞相이 信念을가지고잇는만큼 容易히 進捗되지안코 意見一致되기까지에는 만흔曲折이 豫想되여잇고 電力國營遞信原案에 對하야는 閣內의 不統一된意見은 直時反映하고 各方面의 反對陳情과 反對運動은 熾烈化하고잇슴으로 此를克服하야 實現을 期함에는 政府自身이 重大한決意下에 모든困難을 排除하야 邁進치안코는 貫徹치안흘 立場에잇스며 本問題에對하야는 廣田首相이 어느程度까지 信念을가지고잇는지가 疑問視되여 잇다 또 增稅案에對한 各方面의 輿論에 鑑하야 不得已하다고하고잇는 今日時局에 照하야 首相의 裁斷이 注目된다 又 來年度豫算編成은 未曾有의 大規模의 編成難이 豫想되여 首相、藏相의 方針으로서는 豫算閣議에 드러가기前에 準備工作으로 首相、藏相、軍部兩相의 四相會議를 開하야 折衝을行할意圖인데 最近에 이르러 藏相、軍部兩相間에는 相當히深刻한論戰이 豫想되고잇스므로 此間에서서 首相의 裁斷은 다시 注目할만하다

保護監察所官制

司法省省議에서決定

【東京電話同盟】司法省에서는 二十五日午前九時 省內에서 思想犯保護監察法施行에關한 省議를 開催하고 左記勅令案을 決定하야 法制局에 回附하기로 手續을取하엿다

▲保護監察所官制(要項) 保護監察所에 左記職員을置할 思想輔導官(奏任) 專任八名 兼任十五名 思想保護司(奏任待遇判任) 專任三十三名 兼任若干名 囑託一千名 書記(判任) 專任二十三名 兼任若干名

▲保護審査會官制(要項) 保護審査會는 左記官吏로써 構成함 會長一名 輔導官委員六名 判事 檢事其他學識經驗잇는者

▲思想犯保護監察法施行令(要項) 一、保護監察을 行함에當하야 本人의 名譽를 毁損치안토록 注意할것 二、保護監察을 行함에對하여는 本人의 職業을 妨害치안토록 할것 三、四略

그리고 本法은 一月一日부터 施行할豫定인데 職員도 同日附로써 發令할터이다

稅制機構改革

大藏省에서考究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稅制整理案의 大綱이 決定되엿슴으로 目下具體的細目에 亘하야 分의 決定을 急히하는 同時에 今後 이것이 議會를 通過하야 實行할 稅制機構의 整備에關하야成案을 考究하고잇다 今回의 稅制整理는 中央地方을 通한劃期的改革임에 鑑하야 明年度부터 稅務官吏增員 權限擴大及所得稅調查員의 被選資格의 剝奪等 徵稅機構에 關하여도 大規模의 改革을 實行할 計劃이다 卽其大要는 左와如하다

第二種所得의 第三種綜合所得財産의 課稅를 廢止하고 第三種所得의 課稅를 强化함에 當하야 稅務官吏의 銀行會社 個人에 對한 調査의 權限을 擴大할必要가 잇다 그리고 中央地方을 通하야 稅制整理를 行함으로 稅務官吏를 增員하는 同時에 地方財政에 對하야 相當히 關與케할必要가잇다

一、新所得調査員은 現在全然民選으로되여잇스나 이에는當然 官選을 任命함으로 此를改正하야 적어도 半數는 官選으로 할必要가잇다

一、稅務代辯人이 所得稅調査員을 兼任할時에는 前年京都에서 發生한것과 가튼 疑獄을 生하기쉬움으로 稅務代辯人은 今後 同委員으로 選擧될 權限을 剝奪함

伊宣傳相訪獨

重要한役割을演할듯

【羅馬二十五日發同盟】伊太利宣傳相아메리氏는 二十五日午後六時十分 伯林에向하야 出發하엿다 아메리宣傳相今回의訪獨은 二十八日 伯林에서 開催될 國際作家大會에 出席하기爲함이라고하는데 國際情勢가 重大化한 此際 獨伊提携交涉에 重要한役割을 演出할模樣이다

中野氏가 殉難한 北海의 事件後 主人을 일코 家族들이 暴徒에게 掠奪을 當하고 不祥事가 演出된 現在 中野氏의 遺族인가 생각하매 其前途는 暗澹하나 어찌할수업섯다 그리고 二十六日 海口로 歸去하엿다 그리고 戶根木書記生과 함께 親戚을 尋하고 家族은 ……

西班牙大統領 亞大使館에避難?

【부에노스아이레스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政府部內에 內訌이發生하야 아자니아大統領의 身邊이 危險을 傳하는데 亞爾然丁政府發表에 依하면 아자니아大統領은 二十五日 마드리드駐剳亞爾然丁大使 마시리아氏에게 同大使館內로 避難하고싶다는旨를 要請하엿다 한다

辭令

遞信局長 山田忠次

任高等海員審判所長(二等)(海事課長)遞信事務官 岡田修一

兼任地方海員審判所長(五等)(高等法院判事)判事 本多公男

兼任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三等)(監理課長)遞信事務官 岩男省三

兼任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四等)(各通)(庶務課長)同 渡部肆郎

兼任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四等)(海事課)遞信技師 松崎嘉雄

(釜山海事出張所長)同 松尾太兵衛

兼任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三等)(各通)

(仁川海事出張所長)遞信技師 石黑悌吾

兼任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六等)(海事課)遞信技師 黑田吉夫

兼任高等海員審判所理事官(四等)

(京城覆審法院部長)判事 荻昌德

兼任地方海員審判所審判官(三等)(經理課長)遞信局事務官 村上好

兼任地方海員審判所審判官(四等)(海事課)遞信技師 德永元五

兼任地方海員審判所理事官(七等)(海事課)遞信技師 得能正憲

任地方海員審判所理事官兼遞信技師(七等)(海事課)遞信技師 神谷崇行

任地方海員審判所審判官兼遞信技師(七等)

遞信技手 關谷正

同 杉本一守

同 竹末靖彥

任遞信技師(七等)(各通)專賣局屬兼技手 高村政吉

任專賣局副事務官(七等)(各通) 李玟澤

黃海道屬 西村清

任道理事官(七等)

命黃海道在勤

遞信技師 馬場禎逸

鐵道局副參事 木原貞人

鐵道局副參事 渡邊晴海

同 中山三吾

同 吉田直太

同 橋本角次

同 野口憲吉

同 酒井萬五郎

同 土井靜太

同 小早川博之

(各通)

專賣局副事務官 中山米太郎

同 李鍾勳

稅關鑑定官 谷田利三雄

稅務監督局副事務官 山村廣太

道理事官 大西明重

道警視 高原圓治郞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山田忠次氏(遞信局長)▲今井賴次郎氏(遞信局電氣課長)▲村上好氏(遞信局經理課長)視察次로 廿八日午後七時四十分京城驛發 新京、奉天、哈爾濱各地에出張豫定(十一日間豫定)

▲三浦喜八氏(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代表取締役會長) 新任人事次來社

▲金祥悅氏(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常任監査役)同上

▲足立成久氏(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常務取締役)同上

八面鋒

◇ 每戶八十圓의 公課負擔이 朝鮮의 實情에비치어 만흐나적으나는 別問題로하고。

◇ 이以上增稅政策에依하야 負擔이 늘어간다하면 民力이扶支할수가잇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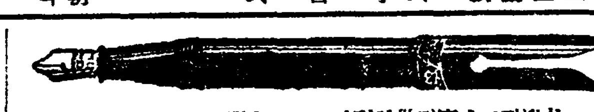
◇ 增稅案을 閣議에서 承認하얏스니 庶政一新의 基礎가 成立되얏다고 陸相이樂觀。

◇ 그러나 實業界에서는 反對의 소리가不絕하니 來議會에 論戰이 相當할모양。

◇ 內亂渦中의 西班牙가 聯盟에叛軍의 援助을呼訴。

◇ 叛軍보다도 第三國의 援助가 만엇일지니 第三國對第三國의 外交戰이可觀。

草津上州 溫泉 R.K. ゆの玉ゐき 家庭溫泉 冷え性、こしけ、婦人病、ヒフ病、神經痛 發賣元 利覺堂本舖 名古屋


高級萬年筆 實用 新製品 連鎖店募集 三京商會 振替名古屋

商報進呈 メリヤス パクト印 名古屋南大津町 田組與商店 電話中一〇七二番 振替名古屋七七番

スバラシイ意匠…目のサメル樣な印刷 納品迅速デ安心の出來る店 美しさ… 趣味のマッチ レーベル 集 賣價二十錢 一組三十錢郵 カタログ贈呈 廣告マッチ 富士紙工社 名古屋石町 電話東二六七九

古着·洋古服卸商 名古屋市東區春岡通り 宮田商店 電話東局二一八五五番 振替名古屋二一九一五番 カタログ進呈

著名問屋 名古屋市中區 合名會社 岡谷金物部 電話本局二三三 振替名古屋三六四 五德ナイフ コロンブ 見本代 十二枚 三錢切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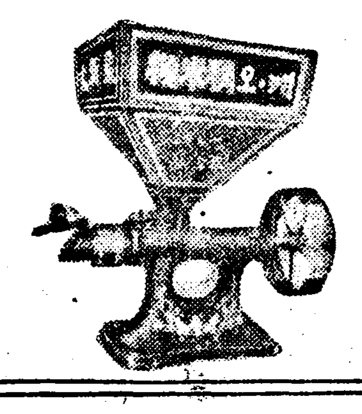
天下無比의名機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로提供할名機出現

最高發動機
◎農家의至寶 ◎農工機械의巨星 ◎燃料節約이第一 ◎出力强大、能率優秀 ◎最新硬質시린다 交換容易 ◎附屬品交換이容易함 ◎初心者와婦女子의運轉도容易하고 故障이絕無함

ケイオー發動機 クスド 太平式精米機 太平式製粉機 太平式製油機 丸六型精粉機 ゴムロール式籾摺機 水車鐵物製造 發動機修繕 唐箕、萬石、農具 シャフト、メタル 其他傳導用品一式

今年의農具準備는只今으로부터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優良國產振興會推撰品

最高級無砂精米機 
本機는絕對信用을生命으로한『케오ー』精米機材料를精選하고도精密하게製作하야堅固함은他機로는比하지못합니다

クスド ケイオー 發動機 太平式精米麥機 發賣元 諸機械直輸入卸賣 太平鐵工營業部 京城驛前(蓬萊町一ノ七七) 電話本局一〇九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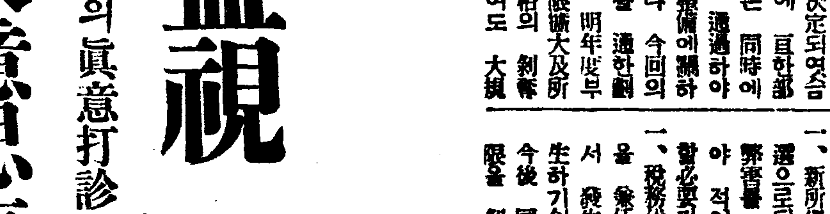
恩給 最大長期立替其他에 立替 遠方은通信契約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支局長募集 全鮮各郡에一個所式支局을設置코자支局長을募集하오니 希望者는規則書三錢切手封入至急申込하시오 京城府漢江通り 京城新聞社

齒科醫院讓渡 京城驛附近 月收入四百圓以上 詳細는本局四九一四番へ

譲店 陶器金物專門店을讓渡하고자하오니 有意하신분은來問하시기바랍니다 府內積善町九七 陶器金物家庭商店

朝報案內

醫專病院眼科指定 醫學堂眼鏡店 
檢眼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鐘路 年會館 電光二二八番

型錄進呈 七面鳥 年利益二十五割確實한副業 中雛及種卵特價分讓 開城府滿月町二八一ノ六 王鎬

燃料五割節約·溫突熱度調節 富國竈 電話(光)二六四二 京城壽町三一五 特約店募集 豐山商會 中1.40 價

咸北明川郡永安炭鑛伊丹組出張所 特典 社宅電燈料免除、沐浴水道의完備、皆勤賞與支給特히採炭夫는優待의方法을講究함니다

坑夫募集 大端히서늘하게되여서、寒氣도眼前에닥처옵니다。그럼으로各土木工事도漸漸히停止되게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와反對로우리炭鑛에서는工事의擴張을企圖하게되엿습니다 ……

實踐簿記專修學院(夜間) 第四回生徒募集 第七回生徒募集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開學補缺生募集 八十月十七日迄 隨時入學許可 隨時授業開始 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開學補缺生募集 十月十七日迄 隨時入學許可 隨時授業開始(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는編入學을受驗準備(學則要二錢切手)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致祝者念記 가톨릭大講演會 時日 九月二十七日(日)午後七時半 演題 現代社會와가톨릭 講師 갈리레오事件 吳基先神父 朱在用神父 場所 京城府民館 入場無料 主催 鍾峴가톨릭靑年會 後援 宗敎·文藝月刊雜誌 가톨릭靑年社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執筆生驛停留場前 博文社

(學則送呈) 認可 電醫養成 (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營業) 認可唯一 特典 入學 認可있는講習院으로朝鮮에서本院外에는업스므로地理上關係로鮮滿學生의便宜를圖코저特히今期入學者에限하야汽車賃半額을授業料에서免除함 高等電醫講習院 釜山府富平町三ノ一七

일흔자식을찾는광고 아희를 일흔 부모가 신문에 광고를 내어 그 일흔 아희를 차자주는 사람에게는 만흔 돈을 주겟다고 하는 일이 잇다 어떤 부모가 한 청원 사례금을 걸고 六세된 三례 독자를 일헛으나 차자 달나 하엿다 ……

國境의癌 密輸問題

根本剿滅策講究

今日總督府서關係當局者들이協議

―同時에關稅改正問題도―

조선과만주국경사이 특히 안동―신의주(安東―新義州)두땅과 및 살륙지대에는 밀상밀수업자가 떠나지안느니만치 만주국세관측에서는 갈금사나운개를시켜서 밀수자를 물게하는등 그밧게 인도상으로 용납못할정도까지 흉독한취체를해서 크게세상의물론을 이르키고잇는 사실에 비추어 관세행정상 커다란두통거리가 되여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일본과 만주두땅의 관세개정문제를가지고 이십륙일 오전열시부터 제삼회의실에서 대야(大野)정무총감대리 림(林)재무, 촌산(村山)세무등 재무국관계외 삼교(三橋)경무, 이등(伊藤) 단하(丹下) 두과장 수적(穗積)식산, 대정(滝井)상공과장, 철도국으로 부터는 길전(吉田)철도국장등이 참집 밀수의 근절문제와 신의주―안동세관의 협조문제외 기타 여려가지에 빼처 협의를 햇는데 이번 협의회의 결과총독부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예정으로 주목을 끄은다

御下賜金傳達式

廿八日京城府廳에서

경성부내 수해리재민에 대한 어하사금(御下賜金)은 오는이십팔일오전열시에 경성부회의실에서 리재민대표팔십구명에게 전달식(傳達式)을 거행할터이라한다

壽松公普에 竊盜가侵入

이십오일 오후세시부터 네시사이에 시내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普)직원실에서 그학교십상의(辻商義)(三七)훈도의 양복웃저고리와 조끼며 만년필을 어느자가 도적하여가버려서 이게 줄물바든 소관종로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다。

冲繩縣에 颱風!

東京으로進行

【仁川支局電話】仁川觀測所發表 동경(東經)일백삼십삼도 북위(北緯)이십도지점 충승현(沖繩縣)남남동(南南東)부근에 칠백사십륙미리의 유력한태풍(颱風)이 나타나서 북동(北東)으로 진행하고 잇는데 아직어떠방향으로취할지자세히는알수업스나 지금방향대로 북동으로 진행하면동경(東京)부근을 엄습할것으로 추측된다고한다

남의짐수레를 밀어주다重傷

남의 짐수레를 밀어주다가뜻박게 자동차에 치어중상을당하엿다 이십오일 오후두시쯤에부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일백십삼번지 아페서 아현정(阿峴町)산칠번지 일백오십륙호에사는조동식(趙東植)(一五)은 전기장소에서 짐을잔뜩실코 허덕이는리모(李某)의 수레를 밀어주다가 아현정(阿峴町)공립직업학교(公立職業學校)소유자동차 강순(姜淳)(二〇)이가 운전하는「트럭」(京五〇二)에 다리를치어 전치약일개월을요할 중상을입고 부근동아의원(東亞醫院)에 입원치료중이라한다

電車轢兒

이십오일오후다섯시에 시내 창신정(昌信町)백오십오번지 압 전차길에서 때마침 청량리에서 동대문으로가든 배시전차운전수 김일주(金日朱)에 오륙세되는 아이가치여 곳부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바덧스나 얼굴 다리고타에 상처를입은 가량의 부상이며 창신정 김운룡(金雲龍)의셋재아들 재덕(在德)(六)군으로 판명되엿다

쌀갑시또떨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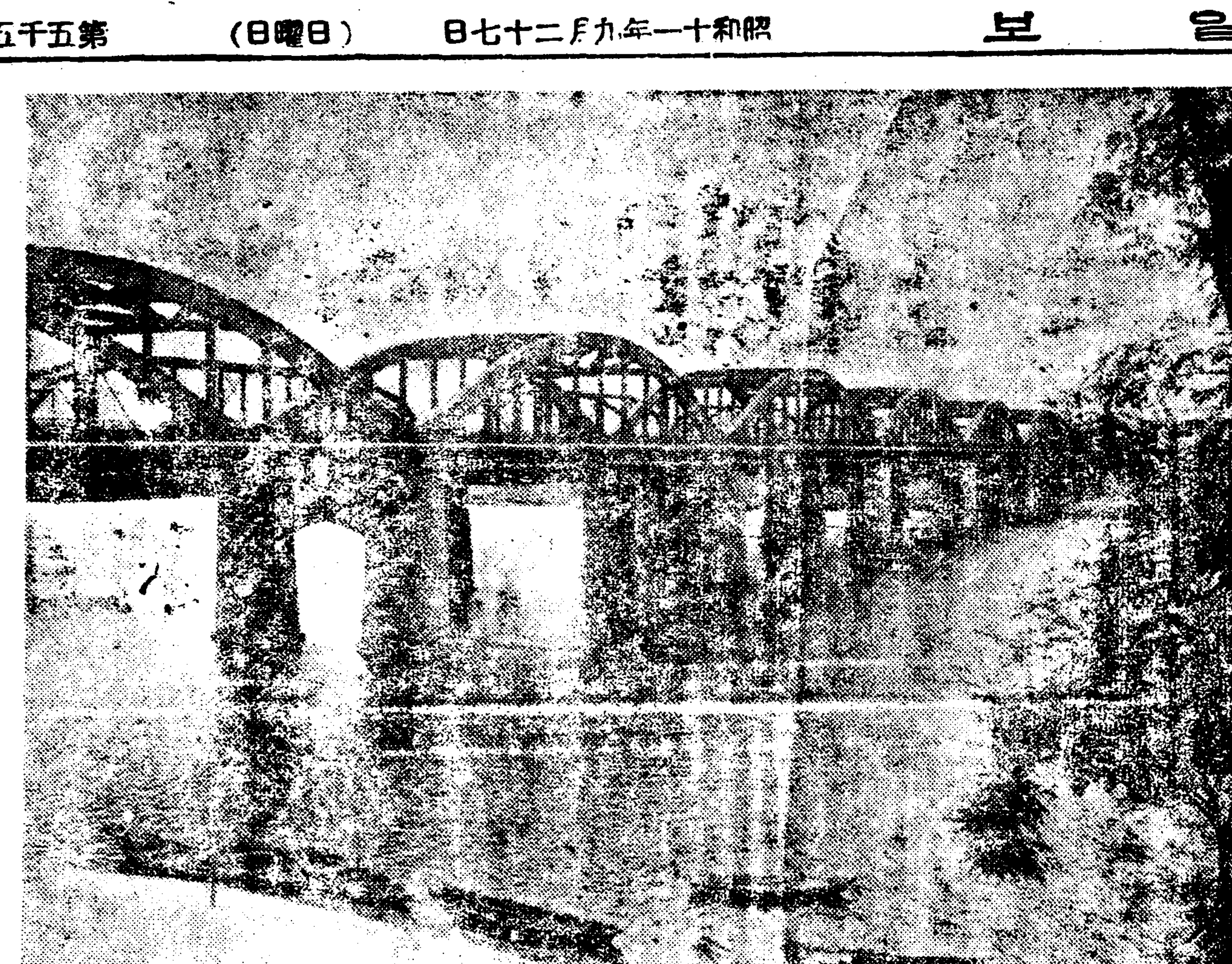
한키로에五厘씩

일본내지에서 벼농사가 풍작이므로 조선쌀이 일본내지로 건너가는것이 막히게되야 현미(玄米)갑시 무척 헐해졋스므로 경성곡물시장에서는 이십륙일부터 백미갑을 한키로에 오리식 네루어서 이십삼전내지 이십사전오리식으로 팔고잇다

▲다마금일등백미 한키로에 이십사전오리

▲다마금이등백미 한키로에 이십삼전오리

▲보통일등백미 한키로에 이십삼전



新人道橋渡橋式

十月二十三日에擧行

이백사십삼만원의 거액을 던저 작년 구월십오일에 긔공하야 가설(架設)공사중의 한강인도교는 이번에 훌륭한 성적으로 완성되여슴으로 드듸여 오는 시월이십삼일 그 도교식(渡橋式)을 거행하고 당일부터 일반의 통행을 개시하기로 되엿다 도이와동시에 현재의 인도교를 헐어버리는 공사를 시작하야 명년봄에 다시 준공식을 거행할 터이다

(사진은 모던스타일의인도교)

爆藥二十六本

蔚山에서拾得

경북울산군울산읍(蔚山邑)북정(北亭)리 리화표(李華表)는 이십삼일오후 네시쯤에 그곳성남동(城南洞)일백팔십번지 조우연(曹庚年)집앞마당에서 이십칠매자리 「다이나마이트」스무개와 삼십칠매자리 도화선(導火線)여섯 개와 뇌관(雷管)여섯개를 주서서 울산경찰서에 계출하엿다

佐伯橫須賀間 編隊大飛行

【佐伯電話同盟】오는 이십구일 좌백(佐伯)항공대에서는 옥정(玉井)대위 총지휘하에 항공대전긔, 정후긔, 폭격긔 합계이십긔가편대하야 좌백, 횡수하(橫須賀)사이에 장거리비행을 결행하게 되엿다

物件훔처서 店舖를버린

빤빤한도적놈이잡혓다

자전거를 닥치는대로 도적질해서 빤빤하게 자전거포를내어 차고 팔어먹어 오다가 붓잡힌자가잇다 부내도화정(桃花町)삼사번지 문석규(文錫圭)(三一)는 지난달말이십일일부터 부내각처를배회하면서 화신(和信)삼월(三越)삼중정(三中井)가튼 백화점아페노혀잇는 자전거를전문으로 설흔채가량을 훔처서는마포정(麻浦町)오십오번지 김봉선(金鳳先)(三〇)의 자전거포를 빌려가지고 그곳에가져다가 진열을한후헐한갑스로 팔어먹어오든것이발각되여 문, 김두명이모다 룡산서(龍山署)에 붓잡혀문초를 밧고잇다

就職미끼로詐欺한 白雙岩의罪狀續續綻露

高利貸金어더運動資金대인親友들은

헛물켜고債鬼때문에허덕일뿐

긔보=유령회사(幽靈會社)인중앙리재사(中央理財社)라는 간판아래서 사회에 물들지안흔 젊은청년을 다수히 희생시킨 백상암(白雙巖)(三三)의 사긔사건은 그후 준엄한 취조를 계속한바 여죄가 계속하야 폭로되고잇다 그는 금년봄 학창을 나와서 취직전선에서 허덕이고잇는 청년들을 감언리설로 속이고 사원으로 채용한다고하고 신원보증금의 일부로 일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생명보험외교원인 자긔의 면목을 회사에 세웟다한다。그 가입시킨 총액이 모다 십만여원으로 그중 한모(韓某)외 이, 삼인은 취직된다는 기쁜 소식에 고리대금을 빗내여서 제일회불입금(拂込金)삼백여원을 지불하라도잇다 이와가티 삼사개월동안 보수 한푼도 밧지못하고, 헛수고한그들에게 남은것은 고리대금의빗뿐이라는 어처구니업는사실이다 또그곳에서 「타이피스트」노릇하든 김모(金某)라는 녀자는 두달동안 고생하고 월급도밧지못한데다가 또 백사십오원까지를 빌려주엇스니, 그만천지당할 엇저할도잇다한다

料亭에서血戰

손님들이些少한感情으로

加害者便五名檢束

이십륙일 오전세시오십분쯤에 시내 공평정(公平町)칠십삼번지 료리집 대서관(大西館)에서 시내 예지정(禮智町)이백삼십사번지 대금업(貸金業)하는 최성만(崔星萬)외 각긔운동구상(運動具商) 미곡상(米穀商) 양화상(洋靴商)과 피혁상(皮革商)의직업을가진 다섯명이 사소한감정으로 그료리집에서 술을먹고가는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 삼백사십칠번지 대금업자 정영하(鄭永夏)(三〇)등 두명과 싸움이되여 한참동안 일대피의란투극이 버러저서 전긔정영하는 얼골이 여러군데 상처를입엇는바 드듸여 소관종로서원이 전긔가해자편 다섯사람을 붓잡아다가 검속문초식혓다

空家에屍體

이십륙일 아침 고시정(古市町)삼십오번지 빈집에 주소씨명 모다 판명되지안흔 약사십세전후의 조선사람이 죽어잇는것을 순시하든본정서원이 발견하고 시체는고양성부청에 인도하엿다

當代沈淸傳一齣

全身不隨아버지를 十三年間至誠奉親

孝女李月順의눈물겨운哀話

最後犧牲·人肉市場에賣身

【平壤】효녀라고해서 지사와 유림회에서 수차의 표창을 밧고동리사람들에게 귀염을 받든 처녀가 불구자의 아버지를 구하기위하여가진고생을 햇스나 궁핍을 면할길이 망연하므로 자긔의몸을 청루에팔어 불구자인 아버지를 구하기로하고 평양진정유곽(賑町遊廓)에 나타난 현대의 심청(沈淸)이가 잇다 이녀성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동부동(慶北義城郡比安面東部洞)리석배(李石培)의 이녀리월순(李月順)(二二)으로 평양진정유곽 매월루(梅月樓)에서 창기영업을 하고저 이십오일아침 평양서에 영업허가원을 제출하려고 차저와섯는데 이제 인육시장에까지 나오지 아니치못한 눈물의 하소연을 드러보면 다음과가타서 취급하는 경찰관들을 울리엿다

리월순은 십삼년전에 모친을 일코 전신이 불구자인 아버지를 섬기며 동리에서 구걸까지 하여가면서 비안공립보통학교(比安公普校)에 통학하는동안에 선생들도 월순을 극도로 동정하여 가진방면으로 도와주워 소학교를 졸업햇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불상한 아버지를 공양하기위하여애를섯고 금년팔월에는 부산(釜山)에 취직처를 구하려 떠나보앗스나 여의치안하 마지막결심으로 오백원에 몸을팔아 매월루에 굴러오게된것이다

비안보통학교 재학중에 모범소녀로 지사와 면장에게 수차의 표창장을바덧고 금년에도지사와 유림회에서 표창된 리월순은 오로지 불구자인 아버지를 구하고저 평양인육시장에와서 압흐로 허가가 되는대로영업을 시작해야된다니 딱한사정이아닌가?

더욱이도 의사의 건강진단의결과를 무르니 육체적으로 처녀그대로잇다구함에는 또한번애처로운생각이 업슬수업다

이때문에 박명미인 참말아담하고얌전한 미인 월순이를 구해줄유지가업슬가하여 진정유곽조합과 평양서에서는 구제해줄사람을 재삼구하고잇다한다

定平農組再建事件

十餘名不日送局

七十餘名을大量檢擧

처음에는咸南警察部指揮로

【咸興】금년오월중순부터 함남경찰부에서 직접지휘하고 소관정평경찰서(定平署)와 제휴하야 정평군내에서 약칠십여명의 청년을 대량검거한 세칭정평적농(定平赤農)재건사건은 그후에 취조를 계속하야 수회에 나누어 석방하고 이제 약이십여명박게 남지안햇다는데 인제는 대개의 취조는 끗나고 약십여명을 불일내로 함흥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할모양이다

東光醫院

專門科目 內科 小兒科 X光線科

特設 呼吸器病無料相談

應診 隨時 入院

京城府貫鐵町一八四番地(大廣橋近處)

東光醫院 電光四〇〇番

神宮奉賛馬術競技

조선신궁봉찬마술회(朝鮮神宮奉賛馬術會)에서는 이십칠일 오전여덟시부터 룡산련병장에서 조선신궁봉찬마술경기대회를 개최할터인바 룡산각련대의 출장으로 성황을 예기하고잇다

殉教福者 記念祭盛況

이십륙일아침열시부터 시내명치정(明治町)천주교당(天主教堂)에서 조선순교복자기념제(朝鮮殉教福者記念祭)를 원주교(元主教)사식(司式)아래에 성대하거행하야 동열한시무사히 폐회하엿다 그리고 그날저녁여섯시부터 그교당에서원주교의 긔념설교가잇다고한다

天氣予報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一度一
同 最低	一五度一
今朝最低	一五度六
今日正午	二二度三

朝鮮體育會綜合競技

陸上競技大會

參加申請은三十日限

朝鮮體育會主催의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陸上競技는 來十月三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者는 九月三十日午後五時까지 鍾路一丁目 朝鮮體育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바라며 參加規定은 一人三種目(릴레ー는此限에不在)이요參加金은 一人三十錢을 밧기로되엿다

▲競技種目 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萬米 低障碍 高障碍 投圓盤 投砲丸 投槍 走高跳 走幅跳 棒高跳 三段跳 함머 競歩競走

◇其外五千米及 中等對抗릴레ー(四百米 八百米 千六百米)는 追後發表함

延專主催의 中等庭球

十二校對陣決定

延專主催의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 庭球大會는 十月二, 三兩日間 延專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校는 十二個校에 達하는盛況을이루고잇다 이날의對陣은 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하엿스며 第一日(十月二日)은 午後二時半부터 第一回戰四개임, 午後四時부터 第二回戰四개임을 行하고 第二日(十月三日)에는 午後二時부터 準決戰, 午後三時부터 決勝戰을 行하기로되엿다

徽 正 工 成 材 東 星 成 青 央 普 高

善 養 商 普 培 中 東 協 基 中 信 二

神宮蹴球戰

九日부터開始

第十二回朝鮮神宮競技大會蹴球競技는 朝鮮蹴球協會의主管아래來十月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의 六日間 京城運動場에서 開催될터인데 一般部, 專門部, 中學部를通하야 廿二個團體가參加하엿다한다

▲一般部=鐵道局, 淸州蹴球團, 咸南蹴球團, 平壤實業團, 光州蹴球團, 漁大津蹴球團, 順天蹴球團, 平壤蹴球團, 京城蹴球團(十月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專門部=普成專門, 齒科醫專, 法學專門, 藥學專門, 大邱醫科(十月九日, 十一日, 十四日)

▲中學部=崇仁商業, 第一高普, 第二高普, 培材高普, 徽新學校, 淸州農業, 淸州高普, 全州高普, 全州農業, 裡里農林(十月十日 十二日 十三日)

西朝鮮中等蹴球에

崇仁商業優勝

二對零으로崇中惜敗

【平壤】平壤醫學專門學校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開催된第六回西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 崇中對崇商의決勝戰은 二十四日延長戰까지繼續햇스나 二對二同點으로 勝負업시 『드론게임』을 宣告하엿다함은 旣報햇거니와 二十五日午後三時半부터 平壤醫專球場에서 (主審)李貞植, (線審)韓昌煥 馬東嶽, (門審)金日善 李熙範五氏 審判下에 崇中先蹴으로開戰하여 一進一退 猛烈한攻防戰을 展開하드니 四十三分崇商R.I.吉道永君單獨으로 『뜨리볼』하여 『골』에 드러가 『골』前에서『숫』한것이 『골인』되여萬餘觀衆을 熱狂케하고 하프타임되엿다

後半戰에드러가 崇中一點을恢復하고저 總攻勢를取하는틈을타서 長驅한것을 崇中GK金容根君『미스』하여 崇商二點을『리ー드』하고 激戰은더욱 熾烈한가운데 崇中數次의『찬스』를놋치고『타임업』되니 萬事休矣라 榮冠잇는優勝旗는 崇商陣頭에 빗낫다 (競技時間九十分)

【崇實中學】

LW RW LI RI CF LH RH CH LF RF GK

鎬周植覚鄭濃燮植樺世模

在德春正道熙命昌弘光容

金李林吳姜任金玉金鄭金

蹴	21
蹴	3
自由蹴	15

【崇仁商業】

門	1 3
蹴	3 5
自由	1 0

神宮卓球日程決定

第十二回朝鮮神宮競技大會卓球競技日程及會場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一般男子選手權=十月十八日午前十時 淸凉町大陸卓球場

▲女子選手權=十月十七日 午前十時 淸凉町大陸卓球場 (出場資格은女子中等校 一校七名以內)

▲中等男子選手權=十月十六日午後一時 淸凉町大陸卓球場 (出場人員은 一校七名以內)

▲申込期日=九月二十九日까지總督府學務局內 朝鮮體育協會로 一人三十錢의參加料를 添付하야 申込할것

어름철의지친몸을회복식히라

運動의가을 服藥의가을!

運動 이健康에必要한것은 누구나잘아는바입니다 그러나아모리조흔運動이라도 本來가虛弱한이는 오히려몸을害롭게하는일이잇스며暫時間만運動하여도 即時疲勞를늣기는것이니 이런이는하로라도速히蔘茸精을服用하시요

一滴千金의 이蔘茸精이야말로 健强을防害하는 모든 病魔를 물니치고 敏速하게 新進代謝作用을 하는것이니 爲先 長時間運動에도 何等에疲勞를늣기지안코 高速度로健康을促進식히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運動과服藥과健康 의三大原則을 發見할수잇슬것입니다

이런症勢잇는분은 한시밥비쓰시요!

◎夏節疲勞로因하야食慾이減退한데
◎肺結核初期나二期로苦痛하는이
◎陽氣不足으로因하야靑靑한老人이된이
◎胃腸病으로因하야恒常苦悶하는어
◎貧血症으로因하야얼골이蒼白하며手足이冷한이
◎神經이衰弱하야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小兒發育不全産前産後諸症

九大醫學博士有効證明

蔘茸精의特長

一、이약은다른蔘茸劑와달나서 人參과 鹿茸의精分을最新藥化學的方法으로 露出配合한外에 有價成分等數種의高貴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하얏슴으로

二、如何한體質에나 맛지안흘일이업는것

三、如何한病弱者라도단하로만 服用하여도 顯著한効果가나타나는것

四、이약은液體인고로다른丸劑와가티잘제하거나 服用後에도即時効力이나타나지안는일이업시 服用하면即時全身에퍼지여効力을보게되는것

500瓦
250瓦

日鮮滿各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鮮滿總發賣元 京城授恩町三二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番

이藥을服用함으로

高速度補血强壯劑

蔘茸精

最弩級 最合理 強精劑

行樂의 新秋

補陰補陽에 가이자ㅣ가第一

一、人體組織과 老少體質의 根本的研究、組織蘇生의眞理 判明人體는 細胞로써 組織되여 細胞間의 分泌하는 호루몬이라는 成分의 有機的作用으로 成育하는것이다 最近이學理가 判明되자 老少의 差異와 健强衰弱의 等分을잘알게되여 그衰弱한 點을다시補足하면 다시健强한 體質로 變하게될은 數多한高明學者의實驗으로因하야完全히證明되엿다 佛國코레지實驗科學研究所長의 生理學的 研究는 最中世界를 驚動식힌 大發明이엿다 眞理가 判明되자 人體衰弱部分의 蘇生原素를 發見하게되엿다 가이자ㅣ는 보음보양절머지는 第一高名한藥이요

二、調劑의 合理化
有名한 藥品이라도 人體에 適合하게 調劑하지아니하면 所用이업다 自古로 藥에秘方이잇서 起死回生도하고 普通常識으로 判斷하지못할만한 神効가잇는藥이업지아니하다 가이자ㅣ는 보음보양약으로는 第一理想的合理的調劑로서 專門大學者들의 驚歎하는바이다

三、東洋人體質에 最適効
가이자ㅣ는 東西洋最高級精分劑인대 우리東洋人體質에 第一確實適合하게되여잇다

四、藥効急速、非一時的
藥을服用할때만 조흔것이아니라 身體組織을 根本的으로 蘇生潤澤하게함으로 効力이長久하고정분으로만된것임으로 効力이急速히납니다

五、男女老少에다ㅣ솟코환약임으로 服用便利하고 特別한禁忌도업습니다
虛弱한분은 다시기운을엇고 健强한男女는 더욱皮膚가 潤澤하야지고 血分을 補함으로 自然華色이생기고 정신이상쾌하야저서 신경쇠약이물너가고 보음보양하야 津津한 享樂을 마음대로 누릴수잇는 藥仙입니다 秋季服藥期가왓습니다 이러한 조흔時節에 이러한조흔약을안쓰시면 可惜可惜꼿한제쓰십시오 實地로 약을服用하시고 모든약中에 제일이라고 경향각지에서 보내신 감사장을 참고하시오 약이면 다ㅣ약이아니요 이감사장은 억지로 꿈인虛飾이아닙니다 약효가 不充分하면 엇지이광고를내겟슴닛가

보음보양 젊어지는약은 가이자ㅣ 가제일어오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잇스니백살까지몸이튼튼하고 원기가왕성하여야 사회에서하고십흔일을할것 이오인생의 향락도잇슬것이다 그런으로 몸이약하고 양기가주러가는것을 다시회복하도록 제일조흔보약을써야한다 가이자ㅣ(KAIZAR)는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신발명한약제의 정분으로된 보음보양젊어지는 약인대원기와 양기를근본적으로 소생식히여 점점왕성하게하는 명약이다。 화류병을알엇던지 과○과로하고 또선천후천적으로 몸이약하야 양기가부족하고 원기업고신경쇠약중이잇는분은 속히가이자ㅣ를쓰시오、양기가회복되고 더욱더욱왕성하야 인생의 향락을마음대로 할수잇다 신외무물이오니 이러한 고명한약을 한제쓰시와 건강제일의행복을누리십시오

이런분은쓰시오

양기부족 원기부족 음위、 속히되는분 불감증쾌감업는분 신경쇠약 빈혈증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좃슴니다

(약가) 중증엔 한제에 십원 경증엔 오원 지방송료 선금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약은환약이오 정분으로만 된약입니다 각유명특약점에도 잇슴니다

약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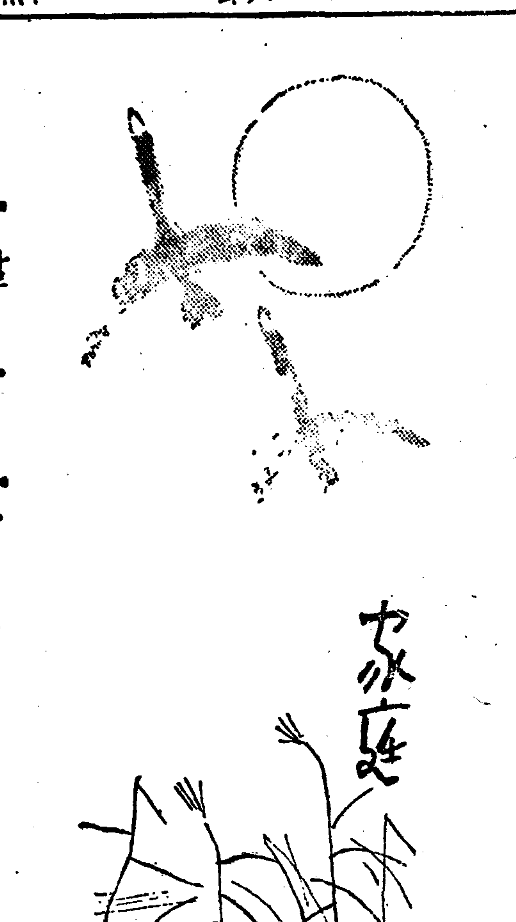
중증엔 십원 경증엔 오원 (중세가심하면 십원분을쓰시오)

가이자ㅣ의효능

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 빈혈증(貧血症) 신경쇠약(神經衰弱) 로쇠(老衰) 근기상실(根氣喪失) 영양불량(榮養不良) 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

◎似而非 類似品에注意하시오
◎實効證明하는이 감사장을보시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고보옆골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겨우살이가 한걱정 솜ㅅ갑슨 어떤지?

미국은흉년, 인도와중국은풍년

별로오르지는안는다

날이 차차 치워 가니 겨우살이가 이런 것 저런것 이걱정됩니다。 그중에도 이부자리를 뜨더 고치거나 새로 작만해야 될 것, 솜옷도 꿰매야 할 것등 솜을 쓸 일이 한군데 두군데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솜ㅅ갑시 올랏는지 나렷는지 어찌 되얏는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만 아니라 요사히 포목전에서들 파는 솜은 대체 어듸서 어떠케 사드리는 것인지 그역시 알고시프실 것이 아닙니까? 이지음 거긔대한 것을 한번 소개하야 드리고자 합니다。 안악네의 참고를 위하야 그 소개가 그다지 무의미할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조선서 나는 솜으로만 썻스니까 조선서솜이 풍변들고 흉변드는데딸아서 그해 그해의 솜ㅅ갑시 오르나리엇지만 지금은외국솜이 만히 들어오는만큼 조선ㅅ것쯤으로는 그 갑시 변동되지 안습니다。 그런데 그외국이란 어듸어듸나 하면 첫재로 미국, 둘째로 중국 셋재로 인도입니다。 아세나라에서 솜이 잘 되고 못되는데 딸아서 세계의 솜갑시 결정 되는동시 조선의 솜갑도 좌우되고 잇는 것입니다。 그 세나라중에서도 솜이 제일만히나고 또 솜의 품질이 제일 조키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종래로부터 일본과 솜의 거래가 가장 만키도 역시 미국이엿니다。 미국솜의 풍흉이우리의 생활에도 큰 관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경제생활이란 비단 솜뿐아니라 모든것이 모다 그럿습니다。

그런데 올해미국은 어찌나 갈울엇든지 솜이 아조 흉변이 들엇답니다。 처음 예상(豫想)도 별로 만히잡은 것은 아니엇는데 그다음ㅅ번의 예상은 그보다도 더 떨어지게 잡엇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솜은 물론 비싸겟지요。 그러나 그러타고걱정은 마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미국과는 반대로 인도와 중국서 아조 무전대풍이 들엇습니다。 벌서 천진등지로 부터는 솜을 아조싸게 사서는 배에 그득 그득 일본으로 실어 드리는중입니다。 천진백면(天津白綿) 극상품이 여덜근자리 열장에 사원, 좀 그만못한 것이 삼원오십전입니다。 이러한관게로 미국솜이 비싸저도 우리네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안케 되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네 가정에서 쓰는것은 조흔 미국솜이아니엿습니다。 대개 우리 조선서 나는것이나 중국솜이엇습니다。

×

지금 경성시내에서는 소매하는 갑스로 상품한근에 칠십전 내지 칠십오전까지 잇습니다。 그보담 더 올라 가지는안을것 갓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장사치들은 헌 솜을 사다가 다시 표백해서 새솜처럼 파는 수도 잇스나 아모래도 좀그래한 괴가 돕니다。 또 그들은 솜을 하야케 보이기 위하야 석회를 씨우는 수도 잇는데 얼는 분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신용잇는 상점에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昨日의運動會

어저께 이십오일날은 길일인가 봅니다。 각학교운동회가 시내에만해도 자그만치 여섯군데, 곳곳에서 군악소리가 나고 할머니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손벽소리가 들렷습니다。 ▲右上으로부터 仁峴、水下洞普校 ▲左上으로부터 德壽、往十里普校

海外토픽 『키쓰』의뒤치송

지난번 백림(伯林)올림픽대회에서 수영경기가 어떠케긴장되엿던지 구경하고잇던 미국녀자 『카ー라ー』부인은 흥분한나머지 『히틀러』총통의 입을 맛추어버렷습니다 이사건은 당시에세상이들석하도록 소문거리가 되엿습니다 그부인의 남편은 안해가 다른사나히와 입맛추엇다고 화를내고잇스나 『카ー라ー』부인은 유명한독재관의 입술을도적질한덕으로 세계에 일홈이노파젓스니 남편쯤은 업서도 조타는뜻이 호기스럽게 도라단인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입술도난사건이 일어난뒤에 『히틀러』를 호위하고 잇던 경관이 모다 면직을 당햇답니다 리유는 직무를 충실히 하지못하얏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요사히는 또 이러한 입술도난사건이 발생할가하야 더한층 엄격한 경계를하며 호위경관을 증원하엿답니다 지금은 목숨을 떼여걸고 날뛰지안흐면 『히틀러』의 입을 맛추기는 조곰어렵게 되엿답니다

밥이단내날때

불을집흔쌀를펴서 밥이늣게되어단내가 몹시나거든얼른 찰숫(木炭)한덩어리를 불에깨끄시 씻서 밥우에 언저노코 밥솟에두껑을 꼭덥허 잠시불을 물리지말고두엇다가 푸면 숫이단내를 모도빨려버려 냄새가안나게됩니다。

◇작난감◇

어린아히 작난감은 반듯이 사서주는것만이 아닙니다 산이나 들가에서 주서온 돌쪼각에그룰 모양에따라서 도화그릴때 쓰는 채색칠을하야서 여러가지증생이나 물건을만드러주도록 하는것도 조흡니다

귀동냥 옷에무든잉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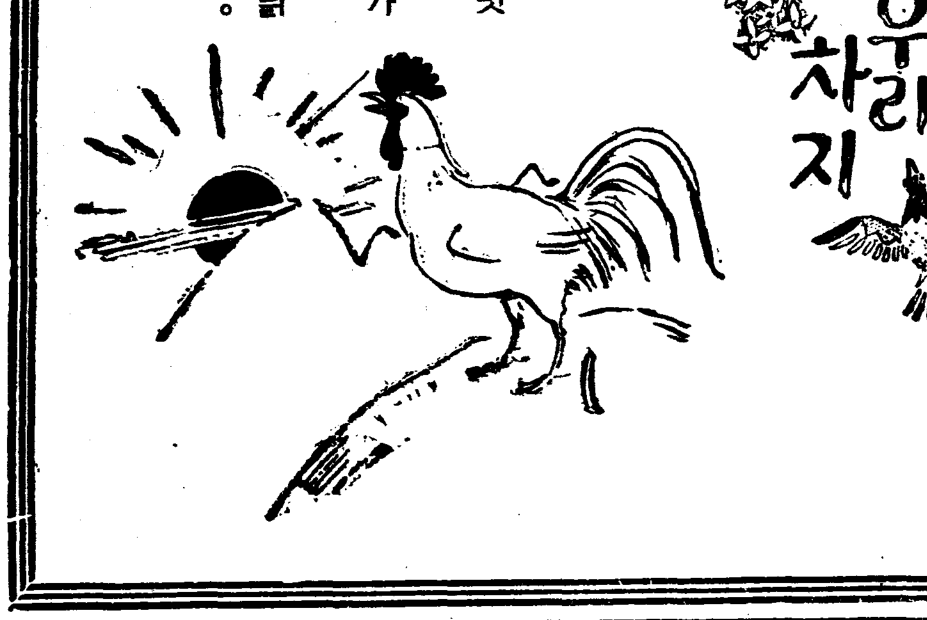
옷에파랑잉크나 빨간잉크가무드면 집안에서 좀처럼빼수업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양복과가튼 털로짠 옷이라면 잉크무든자리에 [illegible] 겨끄린 우유속에 [illegible] 드사한다음 나조에 미지근한물에 또다시행굽니다 그리고한 곳한되에대해서 조산(蓚酸)다섯방울을타서 그물을 헝겁에 무처 문지르면 깨끄시됩니다。

우리차지

『새벽』

『어서들 이러나라』
하고 빩안햇님이 금빗
화살을 쏘앗습니다。
제일먼저 마진데가
우리집 닭의우리장。
『꼬꾀ー』하고 장ㅅ닭
이 눈을번쩍떳습니다。

(글쓴사람 박세창)



朝鮮日報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血液의循環을利用하는 淋疾의 患部直達療法 新發見

從來에考慮되여使用하고잇는外用局所銀劑는尿道一部分의炎症에對하야作用함에不過한다。또使用上非常한苦痛과不快不便을同伴하는것은患者가가장煩悶하는바로서往往淋菌을內部에內攻식혀危險症을併發하는境遇가만타그러나バロール는京大化學研究所의世界的發明『特許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과最新化學コロイド化學의應用에依하야從來에不可能하든金屬銀의內服化를達成하야그特有한ブラウン運動에依한深達作用으로써銀을血管淋巴管에吸收식혀서血液에게强한藥効를주어그循環을利用하야어떠한기픈患部에까지던지滲透하고ー尿道同海綿體攝護腺副睾丸膀胱腎盂子宮等에全面的으로徹底的作用을하는故로男女慢性淋疾에最適하고또淋疾初期에잇서서는症狀이內部로드러가서淋毒性이諸疾患을이르키는것을豫防하면서治癒되기때문에治療領域이局限되여잇스므로急性症狀에도極히的確安全할뿐만아니라不便不快가업고治療期間을短時日로短縮식힐수잇다。

이것은バロール獨特한新治療法으로서臨床醫家와患者의實驗에徵하야絶對好評을博得하는所以이다、卽バロール는京大化學硏究所內에잇서서그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으로써嚴密製造되는我國最高權威의治療藥으로서一般市販의治淋藥과選擇이다른點에注意하시라詳細는文獻을參照하시라

▲全國有名藥店에잇다、萬若品切時에는直接發賣元으로振替或은爲替는代金引으로注文하면卽送함、代金先送료는不要郵券代用도可

藥價 一円八十錢・三円五十錢 五円五十錢・十円 送料 內地十五錢 滿鮮四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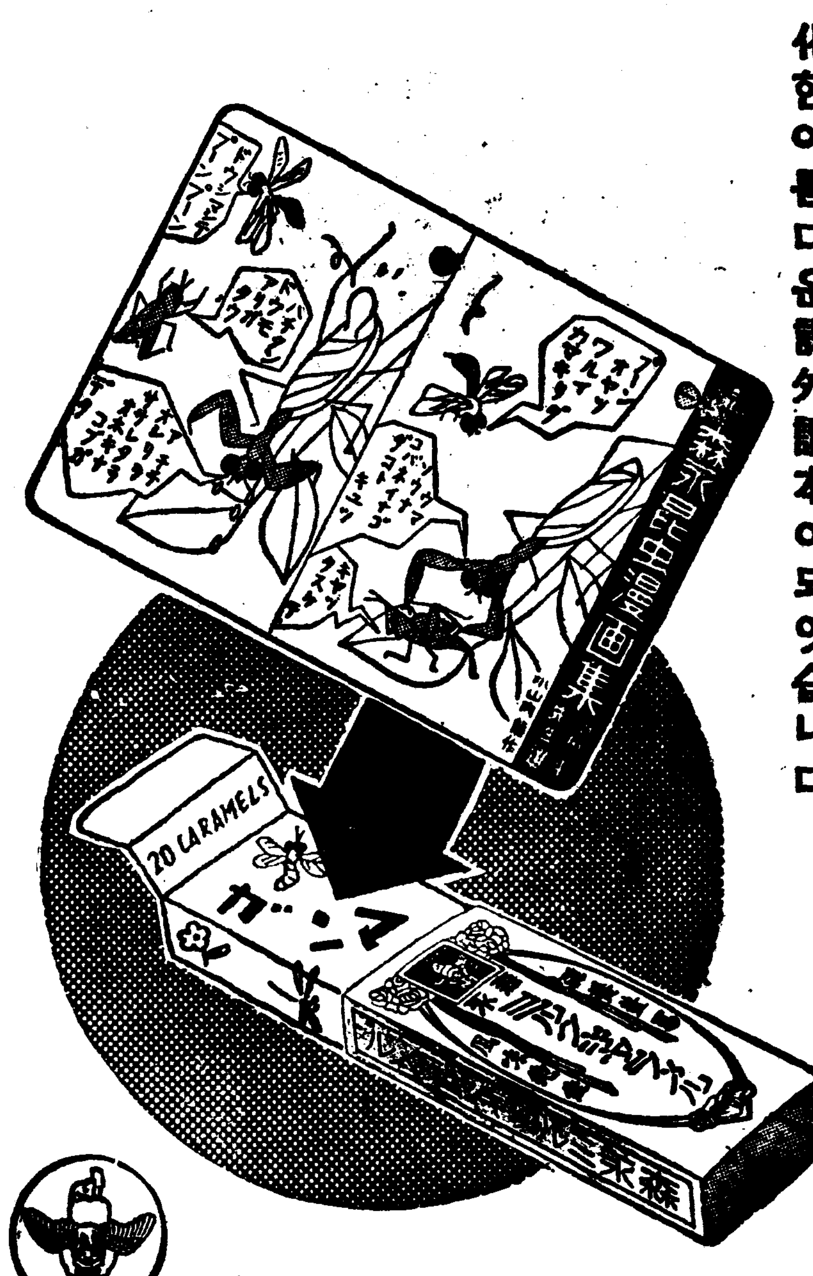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かぢ町三(神田驛側) 振替東京五〇〇番 代表電話神田二一〇五番 大阪市東區淡路町一(大手橋西詰) 振替大阪七七五番 電話北濱三六〇番

無代進呈 製法特許 バロール 新刊「淋疾と其の療法」四六版、四十餘頁、詳細圖解入冊子 希望하시는분은新聞名을明記하신後、葉書로發賣元에申込하시요(一名一冊限)

新發賣！

極彩色漫畫版

森永카라멜의內函은昆虫의世界를漫畫化한아름다운課外讀本이되엿습니다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밀크 캬라멜)

十錢 五錢

昆虫漫畫의新記錄 岡本一平

1 昆虫漫畫의科學的解說 2 昆虫의美術漫畫 3 昆虫에依한倫理道德 4 昆虫利用法及驅除法 5 昆虫의擬人化 [illegible]

漫畫執筆者 岡本一平 矢崎茂四 小山內龍 田代光 石井鶴三 杉浦幸雄 横山隆一 細川喜代志 南部正太郎 和田邦坊 森熊猛 深谷亮 森比呂志 近藤日出造 田山大三郎 小泉紫郎 小野佐世男 吉田宇佐 小林秀恒

森永製菓株式會社

EXIHOS

濕布에 エキホス (에기호스)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有名藥店에는반듯이『에기호스』의備品이잇다。

注意 近日類似品이多數하오니買入時에반드시『에기호스』를指名하시오

A—80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月經寡少、卵巢機能障害 結婚期前後의神經障害

卵巢實質ホルモン オオホルミン (오호루민)

特히、四・五十歲前後 에온다…

下腹痛、腰痛、頭痛、心悸亢進、發汗、上氣、肥滿症、眩氣、肩臂痛其他生殖腺호루몬不足減退에基한諸症患에奏效한다

오호루민은卵巢實質호루몬의分泌製劑로서卵巢호루몬의分泌에不足減退、缺落等에由來하는神經系生殖器系等全身的諸症에應用된다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36—435(O)

浪花館

九月二十五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豪華版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興行 一回 正午十二時부터 二回 續映 夜間 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찰스・비다ー氏監督 西部活劇 아리소니안 리챠드・덱스氏主演

西部野原無法律開拓地에活躍하는西部建設時代에광크・럼大爭鬪篇 竹浦田名物興太者映畫『홈자온드版』

巨匠野村浩將氏監督 現代喜活劇 興太者と小町娘

興太者三銃士 藤野秋雄氏阿部正三郎氏 三井秀男氏主演 上山草人氏坪內美子嬢 大日方傳氏共演

9月23日より9月30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中田絹代主演	せめて今宵を	11・30	2・55	7・10
滿鐵情報部製作	熱河	12・34	4・00	8・15
獨逸ウファ特作	ジャンダーク	1・30	4・58	9・14

入場料金40錢60錢

第一劇場

空中自動車 喜活劇 파라마운트社作品無聲映畫 冠會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學藝

古書에서보는言語變轉攷
(救荒撮要)에對하야 ②
方鍾鉉

처음에 世宗大王이 救荒辟穀方을 著作하사 備荒에 主力하섯스니 이 賑恤謄錄에 依하야 보면

世宗大王旣著救荒辟穀方又以備荒之物救荒經濟六典以救萬世蒼生之命可謂至矣……

이라고하야 救荒撮要가 著作되기前에 몬저 辟穀方이 잇섯든것을 알수잇고 또 한가지는 善政을 施하는王朝에 오히려 凶年이 자주 잇다고하는 傳說과도 갓치 어 世宗大王때에도 失農으로 因하야 人民의 飢餓를 憂慮케하는일이 여러번 잇섯다 여기에서 그當時의狀況을 極小限에서나마 觀闡 엿보기로하면 아래와갓다

世宗實錄乙丑一月條에

戊子金宗瑞忠淸江原黃海道監司今年道內失農民食不給又於立春之後連日大雪沍寒永凍恐有饑饉之民旣不能採菜於山野又不能借貸於鄰里因以糾食以致飢饉甚爲慮其知悉多方布置廣行賑恤使失農之民得免饑以副憂懷

그後 明宗甲寅(西紀一五五四)에至하야 우에서 임의 말한바와가튼 救荒辟穀方等 여러賑恤의書籍을 參考하야 새로 一方을 지어내이니 이것이 바루 本題로 論하는바인救荒撮要 이라

慶板考卷一에

世宗朝著救荒辟穀方書者湖領飢遣使賑恤又鈔救荒方之最要者名曰救荒撮要印布中外……

이라고하야 嘉靖三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李澤次知인 賑恤謄錄를 引用하엿스니 우리는 이것을 據하야 이책의名稱이며 또 그編纂되目的을 아울러 알수잇게되엇다

다음으로 이책의板에 關하야 參考하면

이初板은 그名稱도 救荒撮要의 四字뿐이고 張數도 合十七枚뿐이다 그러나 新刊救荒撮要라고하는 名稱으로 宋時烈序와 申洬跋文을 다시 附加한 顯宗元年 庚子本이 잇스니 이것은 崇禎紀元後 丙寅四月에 朴致維가 讎梓한 新本과 同一한內容을 가진 版本이다 이밧게 最近 昭和四年九月에 石印館印刷所發行으로된 最新刊本이 잇스며 그外 寫本으로도 傳해오는 것이 잇다

이제 諺解의部分을 最新本과 比較하면

1、「ᆞ」는「ㅏ」로 變한例 사ᄅᆞᆷ을 사람으로

2、「一」는「丅」로 變한例 ᄎᆞᆷ을 참을 로

3、다른 語句로 바꾸어쓴것 例 빌령……빌경

버거……다음에

브ᄋᆞᆫ……부황난

ᄒᆞ라뎌……充實하되

혀거지……보자로

도고……버딤

므더하다……조타

비저……반죽하야

ᄒᆞᄅᆞᆺ게……한참동안

이런것들이 顯著한것이고 그밧게 蒔의諺解를 지령으로 한것은 오늘의 갓장이라말과 比較하야 現存한 方言과 아울러 오래根據를 알리워 주는것이다 그러나 더러 갓장을 漢字로甘醬이라고 쓰는것을 보지만은이것은 조금 생각할것이 아닌가한다. 웨그런가하면 갓장이라는말의 갓은 甘字의意를 包含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간字만으로도 隱隱히 或은醬을 意味하는語가 되므로서이다 이 간字는 때로 音의調和로因하야 갓字로도 나타나는것을 우리는 잘안다 그러므로간字의意가 甘字와 同一한것이아니라는것을 여기에 말해두는것이다

끄트로 新刊救荒撮要跋을 全文대로 擧하야 由來를 밝히고저한다

昔我世宗大王嘗以爲民飢饑食救之無術遂錄荒政中辟穀方以示民使自救死明廟朝亦因賑饑抄其最要翻以俚語使民易曉名曰救荒撮要頒示中外此實禹稷寒燕飢餒之意也歷時滋久印本無多濟谷並俗國東修鋟板而散摄苑鑒見而知者蓋鮮矣今洬叨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의地形的考察
―徒步探險의經路에만限하야―
(一) 姜在鎬

湖水는 깁희를더하진 眼下千尺의斷崖안에 담겨잇서 水色은 大體로紺碧이고 오즉 湖岸만은 가늘게 綠色의 푸른빗을 加한것가티 보인다。火口壁은 灰白色이다。岩色은 暗褐色或은赤黑色이다。이러한 岩石의 崖錐는 흰모래를 끄는듯시 湖面에 슬쳐잇다。兵使峰과遮天峰사이에 깔린 輕石의 崖錐를따라가면 湖面에 나리는 一條의鹿道가잇스니 降路三十分 昇路二時間半 뒤나려가서부터 砂濱十町의 湖岸에 到着할수잇다 한다。今番計劃은 湖畔에서 露營하면서 詳細히 觀測할나 햇스나 猛風과 寒氣(氣溫으로는 攝氏 零下二度 이엿스나 風에 感得하는 寒氣는 [illegible])로 因하야 所期를 達하지못햇다。이제 先人의記錄을 드러 參考에 供코저 한다。一九三〇年八月十一日 米國人吳氏一行 測深에 依하면 中央部 最深部라할만한곳이 百二十六尺이오 水溫은 攝氏十度、生物로는 傳來의 口傳에는 水中에 五色의 魚類가 棲息云云하나 登山者와 多年探險에依하면 아즉은 魚類는 勿論附近에는 虫類도 發見할수업다 한다 天池의 물은 北方火口壁의 一部가 끈어진 골작이를 通하야 火口瀬(通稱闥門)를 일우어 約一粁北流하다가 塔岩峰의斷崖에 約三十米의落差로 龍飛瀑이되여 松花江의水源이 된다 한다. 또한使으로 이天池의물은 火口壁을 逃出하야 鴨綠江의 水源이되다하니 實로이天池는 兩大河의 水源이다.

以上의論據를보와 白頭山은 朝鮮滿洲의最高峰이다。

이것은 疑心할바업스나 그活山인것은 活動의時期問題이다、記錄이나 口碑에傳함이잇스면 活動을中止한休火山이라할수잇다、口碑에는드른바업스나 火山活動으로 疑心할수잇는 記錄을 紹介하면 이러하다

『宣祖三十年(一五九七年)八月二十六日辰時、小農堡越邊北德者耳坡聲人不接民聽、再度有放破之聲、仰見則煙氣漲天、大如數抱之石、隨煙折出 飛過大山後不知去處』(宣祖實錄)라하얏고또肅宗二十八年(一七〇二年) 四月『十四日午時天地忽然晦暝時或黃赤有同煙熖、腥臭滿室、若在烘爐中、人不堪熏熱、四更後消、而至朝、觀之則遍野雨灰恰似燔殼者、然鏡城府同月同日稍晚後煙霧之氣忽自西北地香暗臙臙之臭襲人之衣裾』(肅宗實錄)特히 後者即一七〇二年記錄으로는 若在烘爐中人不堪熏熱이란 文句를보와 火山灰의 熖熱을 體感한것이니 火山의爆發로 認定할수잇지안흘가 생각한다.

設使 白頭火山의 活動은 有史以前의 것이라 假定하더라도 至今도 오히려 그活動의 餘勢로 볼수잇는바 事實이 잇스니 即 硫黃溫泉의 存在이다.

H.F. Mjamo 著『長白山』에 依하면 小臙脂峰의 西方 即 白頭山南麓二里에 硫黃泉이 잇는데 水溫은 華氏一四二度나 되다하엿고 元營林廠事務官으로잇던 大崎峰發氏『鴨綠江』이란冊에보면 鴨綠江源의 西方으로흘르는곳이요 白頭山上에서 約二里쯤가서 硫黃溫泉이 잇다는데 溫度華氏一五〇度를 보인다한다 이溫泉은 位置的相距와 溫度로보와 同一한것이 아닌가推測된다 또는 元營林廠員 吉岡氏의 白頭山森林植物調査報告記에依하면 湯水長은 松花江水源地에 갓가히잇고 또 白頭山 南西麓에 當하는 江岸에 溫泉이有한데 그溫度는 매우노파서 客舍一戶入浴할수업다하며 客舍一戶가잇슬뿐인데 鴨綠江의 湯里에서 約百九十里行程 約三日半이걸린다한다

今番同行인 金東淵氏는 昭和五年天池探險時 天池湖畔에나려가 松花江源附近에서 溫泉을맛나 入浴하엿다하니 이것들이吉岡氏의말한湯水長 大韓帝國에의『大池水東北流興溫泉水合流北流爲混同江(松花江)』의 것이 아닌가한다 湯水長이라湯은 中國말의 溫水의 뜻이니 湯水長의地名은 溫泉所在를 意味한것이아닌가 한다. 如何間 直接探險하여 그存在를 밝히지못햇슴은 크게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

이번同行馬夫 案內者들에게 물어보와도 白頭山이쪽것쪽에 溫泉이 二三個所잇서서 일부러溫泉浴하러來往하는사람이 잇다한다.

季節의哀話

故事拾綴
慧超遊記의結論
湖岩

慧超가 五天을 遍涉하야 安西에 回至한 唐開元十五年은 西紀七百廿七年이다。이때唐文運은 한창 光輝絢爛하든 黃金時代임에 反하야 西洋諸國은 온갓迷信이 橫行하든 中世暗黑時代이다。千有餘年의星霜은 東西文化의 地位를 顚倒시키고 말엇다。

慧超가 入竺한目的은 商賈도아니오 使節도 아니오 佛蹟의巡禮로 爲함이어니와 그가五天을往返하는동안에 入竺한新羅僧은 한사람도 맛나지 못하고 天涯萬里에서 客死한唐僧을 哀悼하엿슬뿐이다。慧超는 이와가티도 胡國王城에서 吐火羅國으로가는 唐國의使節을 맛나 「君恨西蕃遠 我嗟東路長 平生不省淚 今日灑千行」 이라고 눈물겨운詩를 지여준일이 잇섯다。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慨括的으로 佛敎文化에 對하야 좀 떠말하려한다。

印度는 東洋諸國人에게 먼 聖地이다。이것이 마치猶太가 西洋諸國人에게 聖地임과 갓다。東洋文化와 佛敎關係는 西洋文化와 基督敎關係에 比할수 잇스나 佛敎는 隆盛時代에도 저基督敎가 中世歐洲를 支配한것처럼 東洋諸國에 對해서 政治的 勢力으로 다스리지는 안헛다。그러나 佛敎를 바탕하야 東洋諸國의 唯一한 文化的連鎖가 아주密接하엿다。

오늘날 佛敎는 그發祥地인 印度에서 이미 거의消滅되고 그대신에印度敎가 盛行함을 보겟다。그러나 印度敎도 그實은 固有하든婆羅門敎에 新興한佛敎의敎理를 섞거서 맨든宗敎인즉 佛敎의變化가 적지아니할것이다。[illegible]

(끗)

『루포르타쥬』④
移民小話
―報告NO．2―
哈爾濱 蘇星

이러한일로 말미암아 만주사람들의 感情이 極度로 惡化되여 조선농민에게는 土地를 빌려주지 말자는 輿論까지 成立되여섯다 그때가 時節은 바로 五月頃이라 水田耕作에는 한때가 千金가튼 때이며 이때를놋치면二千餘名의 今年農事生活은 말이 아니겟기로 나는 그날밤곳 參事官을만나서 밤늣게 歸着하여 解決의 端緖를 엇기위하여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하엿스나 元來 農資金과 土地買收金이라고는 한푼도업는 自由移民群들인지라 滿洲人들에게 土地의 年租契約을 할돈이라고는 한푼이나 잇슬리가 萬無하엿다 돈이업서서는 感情이 이가리 惡化된滿洲人地主와는 妥協할餘地가 全然업기때문이다

이리해서 여긔서 몃칠을 묵으면서 보앗스나 여러가지 方法을 硏究하여서 서로서로를 별 道理가 업서서 걱정하고잇든次에 마침 開城서 이곳에 土地開墾을 觀察하려온 젊은 靑年實業家가 여긔와서 잇단말을 듯고 곳 그資本을利用하여서 이 困窮에 移民을救할생각으로 그를 그다음날밤 海雲樓라는 料理店으로 請하여 이곳의 土地開墾事業이 매우有利하고 또한 그우에 現在 조선移民의困難한 現狀을눈물로히 說明하여 資本의 融通問題를 議論하여 보앗다 그런結果 確實한 保證만하여준다면 한五、六千圓 程度의資金은 곳 낼수잇다는것이엿다

그러나 여기에 今年農事를하게될土地를 契約하기엔 아모리적게들어도 八千圓까지는 끠여코 잇서야 契約이 成立될수잇섯스나 그靑年에게는 六千圓以上의 資本의 餘裕는 絶對로 업섯다 그以上 더融通할길이 업섯으로 그資金範圍로 滿人地主代表者들을 某公署에 集合하여서 곳 交涉을 하게되엿다 그래서 꼭 交涉이 어느 程度까지 有利하게 成立될지 이靑年의 金額이 생기여서 곳開墾으로 나지만은 안되게되여 재交涉 城으로 떠나버렷다 勿論 한一週日後이면 꼭 돌아오다는 約束으로… 그러나 떠난 그靑年은 二週日이넘어도 한장의 消息조차업고 移民들의 交涉期를 압두고 우리들의 交涉成立을 여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안헛섯다 그가떠난후 무렵만에 비로소 書信한장이왓스니 家庭에 急變된事情이 생기여서 約束한 投資를할수가 업다는것이엿다 그대로 기다리든 우리에게는 하도어이가 업서서 그의不信함에 憤怒가머리끗까지올랏스며 그가 겻헤 잇스면 때려주고 싶도록 激憤하엿다

事實은 여기서 끗이 날뿐이 아니엿다 滿人地主들의 힘과 그들에게 對한 信用도업게되여가거니와 二千餘移民들의 今年農事 문제와 生計 如何를 해결못하는것이 重大하엿다 그리하여 그러는 同時에 移民들의 激憤도 甚하고 滿人地主들의 耕作地를 中心삼어 個人的싸홈이 날로 甚하여저서 그것이 한暴動까지되여갈 事態는 날로 切迫하여 一時 餘裕 잇가지 되엿다 그래서 나는 近한달동안의 努力과心慮로 몸이 疲困하게되엿스나 적당한 旅館이 업슴으로海雲樓의한칸방을 빌리여서 누어잇게 되엿다 마츰내 여기서는 해결할方針을 엇지못하엿고 할일은 세울에 다른方策을 세울예정으로 며칠후에 몸이어이지간만하면 돌아갈생각이엿다 그날밤은 봄비가 시름업시 나리든밤이엿다 나는혼자 이村落의한적은 료리집의 한칸방에 누어서 가엽는同胞들의 신세를생각하고 그것을 엄마도지안흔돈으로 못구하는 이여러가지를생각할적에 젊은나의가슴은 찌저질듯이압헛다 밤이 몹시는저진 때 나는여러가지생각에 괴로워서 술을가저오래서 淺酌低唱의 하여보든 마음을 어루만지고잇섯다 그리는중 海雲樓의主人이 나의방에드려와 이집에서 일하고잇는 두妓生이 이移農民의 情景을듯고 自己들의몸은 이왕 이러케되엿슴이라 한번더팔려故鄕의 自己의 아버지 어머니가튼 이우리移住同胞를求하는 것은도움이되고십흐니 어떠케는냐는말이엿다 나는 이突然한말에 몹시도놀라고 感激하엿스나 不過 唱女가 몸을팔대야 그애처러운돈이 不過 千圓에도지나지못하겟고 또 그런길을 걸어온 불상한 두여자를 또다시 그런길에 넛는것이 너무도 불상하여서 그 마음이야 지금의 세상에서 더욱히 우리동포들에게 보기드문 純潔한마음이나 여러가지 사정을말하여 그것을거절하고 승락하여주지 안헛다 그랫드니 주인이 나간뒤에 다시두여자가 나의 방에와서 먼저 들의신세 이약이를한뒤에 지금 自己네들이 모흔돈이 적으나마 合하여 千餘圓이잇고 또自己들이 먼 地方으로 팔려가게되면 두여자몸갑이 전부二千餘圓은넘어 될터이니 그돈을가지고 當分間은 어느程度까지 만주地主들과 잘妥協하여 달라는말이엿다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六 [illegible]

李雨天

亭亭雨蓋碧塘潯
淨可納涼供我吟
乍翻裙翠金風起
微潤房紅玉露侵
羅襪凌波香步步
碧筒助飮興沉沉
品名元是眞君子
生在於泥不染心

詩人部落創刊

旣成한詩文學이 모든潮流에 한개의眞正한 詩道를차지려고 新進詩人들이 서로모혀 同人誌『詩人部落』을 創刊한다는바 住所는 市內通義町三番地이고 發刊同人은 金東里氏外十二人인데 同人及同好人에 널니求한다고한다

連載野談 布袋記 (二六)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골캐든총각 (十二)

진평대왕께서 선화공주 압헤 내노흐신 무슨 물건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봐! 그것이 짐승의 힌것이 아니고 무엇이야」

하시며 선화공주를 독바로 처다보섯다。

선화공주는 그조희에 쓰인것이 무엇인지 알수는 업스나 그조희가 분명 까닭이 부른것을 생각하매 얼는 뛰를 돗이 업섯다。

그래서 약간 주저하다가 별나는 손으로 펴드니

「선화공주님은 남몰래남몰래 시집가시려고 밤만도라오면 서동방단여가신대요。」

한 사연이 또렷 또렷이 씨어잇섯다。

선화공주는 보기를 다한뒤에 얼골빗치 하얏케 질리고 우아래 입설은 딱 달려부텃다。

「그래 그말이 무슨말이야。」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다시선화공주를 바라보섯다。

선화공주는 여전히 말이업고 그 하얏케질닌 얼골빗치 점점 더하여 갈뿐이엿다。

이때 왕비께서도 그조희를끌어 보시고 딸앗케 질리시어서 아무 말슴이 업시 선화공주를 바라보실뿐이엿다。

그리다가 왕비께서는 두입설에 서꼿을 내미시어 축이시며 떨니는 목소리로써

「세상에 고약한 일도 분수가 잇지。공주아기가 이러케 부정한짓이야 햇슬리엇나。만일 공주아기가 이런 부정한짓이 잇다면 이것은 그한몸을 욕되게한것이아니오 우리 시조대왕이후 존엄한 궁내(宮內)를 욕되게한것。그적、어찌살기를 바랄가。그럿치 안허용?」

하시며 선화공주를 또한 바로 처다보시엿다。

선화공주는 그뻬지와가티 희든 얼골빗치 별안간 진달홍빗초로 변하며 두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얏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너머나뜻아니일을 당하는데 대하야 놀납기도하고 분한것은 물롱 그런 금밥이 또렷이잇는 그자리에서는 아무리 수정가티 깨끗한 몸일지라도 그깨끗한것을 변명할수업슴으로 그금밥을보는 처음에는 너머놀나나서 하얏케 질니엿든 얼골빗치 나중에는 너머 분하야 진달홍빗초로 변하며 오직 도거운 눈물만 흘니게될것이다。

진평대왕께서는 선화공주가 느겨우는것을 보시다가

「우는뜻이 무엇인고。부끄러워서 우나。분해서 우나。분하든지。부끄럽든지 어쨋든 제답을 말하지아니할수는 업는 이자리。」

하시며 또한 선화공주를 바라보시새 한편으로는 선화공주가 느겨우는것이 가엽게도 보이시고 도한편으로는 분한 생각도 계시엿다。

선화공주는 느겨울는것을 간신이 억제하고

「아바마마。더러운 허물로써 어목과 뼈는 헤울지라도 귀신만은 깨끗한 귀신이되옵것이니 통촉하압시기를 알외오。그러하압고 입에 담기도 살이떨니오나 서동방이란것이 무엇이온지 그것만 명백가릅신 성총(聖聰)으로 사실하와주시오면 일만번 중한 처분당하와도 원한이 업슬것을 알외오。」

하고 선화공주는 자못가리 냉한 긔색으로서 업드려 머리를 조앗다。

이때 왕비께서도 진평대왕께서 미처 어떤 처분의 말슴이 내리시기전에

「상감마마。알외옵기 황송하오나 이일은 다만 공주아기에만 국문할일이 아닌것을 알외오。공주아기가 죄가잇다면 그죄는 적대로잇스러니와 이것이 분명까닭이 잇슬일이오니 그 까닭을 엄히 사실하여 주시기를 알외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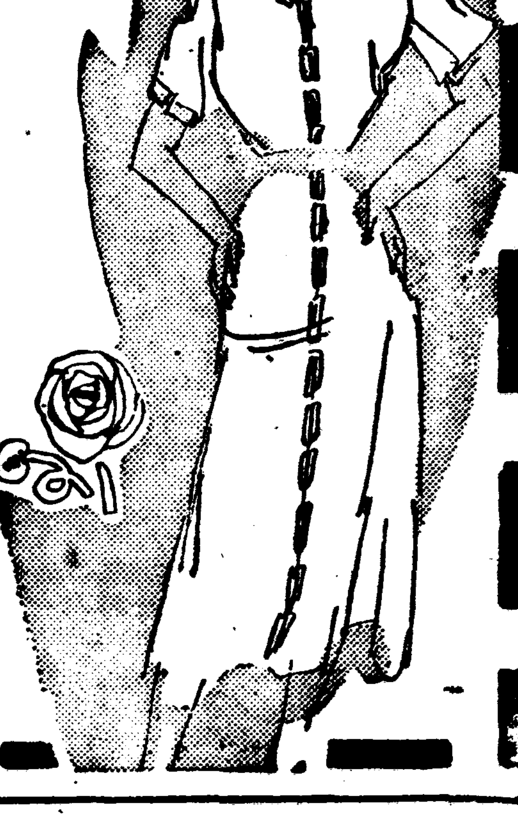
하시며 두눈에 눈물이 매치섯다。

「짐인들 범연히 알고 공주아기에게 뭇는것이 아니오。짐이당하고 생각한것을 설명할러이니 내전(內殿)마마께서도 들어보시면!」

하시면서 진평대왕께서는 그소문이 왼나라에 떠저 어린아이들까지 그소문을 노래삼어 부르고 다니는것과 그소문을 노래삼어 다니는것을 선화공주를 보이기 위하야 친히그러케 적으신것이며 조정의 문무대관과 여섯마을촌장을 불으사 그소문의 출처를 사실하라신 분부를 내리신것을 저저히 말슴하신뒤

「자! 사정이 이러커니 다시 무엇이라하리。이제는 이일의 해변을 부녀간의 지정으로할수업고 군신간의 국법대로할수밧게 업는일。」

하시고 진평대왕께서는 크게분해하시며 곳 국법에 비최여큰 거조를 채리시게되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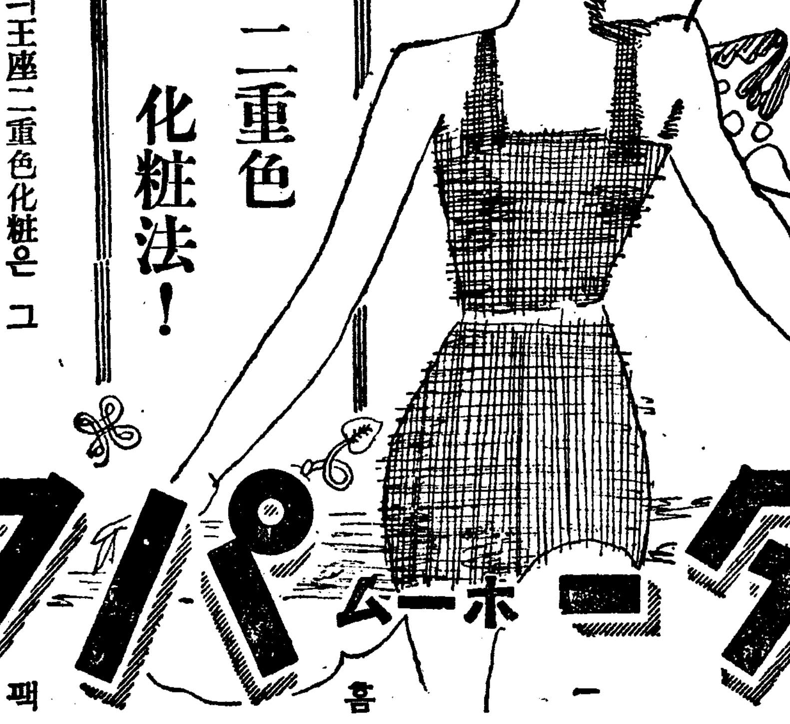
悪質な日ヤケを起す過剰皮脂

이過剩한 皮脂는

化粧을보기싫게 深塗를 이잇게하거나 回復하기困難한 斑點이 생기는것을이르킵니다 그러면 그對策은……이에는 過剩한皮脂만을 適當히하게 吸收調節하는 微妙한作用이잇는 活性特殊白味劑를巧妙히 配合한粒子로서 配合한홈팩트와 오ー클마스타ー를使用하는것입니다 그런데 基本美肌劑 스킨호르몬性라세랑이라고해서 皮膚細胞에 榮養과活力을 給與하야 老廢物을排泄하는 作用이 强한美肌劑라도 配合하엿스므로 ▲기름끼업는 淸新化粧이될수잇고 地肌를 彈力잇는若肌로하는 等 女性에게 큰 기쁨과信賴를 맛고잇습니다

他에비길데업는 活性特殊白味劑 配合

マスター ホーム パクト
마스타 홈 팩트



二重色化粧法!

모ー드의王座二重色化粧은 그윽한맛이잇서서 기름끼가업는 特徵이 여름의美容法으로 絶讚을밧고잇습니다 먼저爽快한色味의오ー클마스타를 손끄트로 얼골에두드리는것가튼 氣分으로발르면 均等하게잘먹습니다 다음에눈 입 이마의周圍에까ー제던가다오루로 가볍게문질르고 홈팩트의 카카오色을바릅니다 이것으로서立體的인二重色化粧이됩니다

基本美肌劑ラセラン配合
オークル・マスター

河合딴쓰公演 九月二十六、七兩日間 府內府民館에서 河合딴스를 公演하는바 寫眞은 그레로의 한場面

二十六日 (土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二) 一、에기각씨…柳基興曲 二、너왜갓느냐…同 三、달마중…洪蘭坡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外 朴景嬉 外實演兒童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解說 韓普容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奚琴 申海中月 申忠根 細笛 金昌根
◇同八時三〇分 舞臺劇―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春香傳』中 第三幕 第一場五里亭 第二場東軒
―配役―
李道令…丁南希 春香…朴綠珠
房子…吳太石 香丹…金仙蓉
新官使徒…金昌龍
出演 朝鮮聲樂研究會員
金春植 李春峰 朴之鉉 白銀姬
◇同九時五分 習律『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

二十七日 (日曜)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노래공부 平井美奈子
◇同七時三〇分(東) 謠曲 觀世驥之丞
◇同八時一〇分(東) 箏曲
◇同八時二五分(京) 映畫劇 第一映畫撮影所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七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歌曲溫習―歌曲溫習會場으로부터中繼― 一、羽調初數(男唱) 二、羽調二數大葉(女) 三、羽調三數大葉(男) 四、羽調頭擧(女) 五、騷聳(男) 六、平葉(女) 七、界面三數大葉(男) 八、界面頭擧(女) 九、言弄(男) 十、平弄(女) 十一、言樂(男) 十二、羽樂(女) 十三、編樂(男) 十四、編(女) 十五、太平歌(男女合唱)
歌曲 溫習生一同
◇同六〇〇 兒童劇『沈淸』全三幕 百合어린이會 指揮 金順禎 效果 效果班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懸賞라디오小說發表(三等當選)『종소리』―崔琴桐作 沈影
◇同八時三五分 名戲曲의밤 一、『椿姬』中一節 二、『알트하이델베르히』中一節 三、『暴風雨』中一節
指揮 同人會 申左人 效果 宋觀燮
―나오는人― 朱在善 … 壬庚

二十八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歌謠 一、春眠曲 二、竹枝詞 金渼紅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主婦에게 必要한科學知識 姜正高 崔在燁
◇同三時一〇分 (東)敎師의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이야기 金富鎔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徐椿
◇同七時三十分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 비이올린獨奏 一、소나타E長調……헨델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第二 〃 알레그로 第三 〃 라-르고 第四 〃 알레그로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體操 柳井 德治
◇同一一時五〇分 (東)新聞聯合
◇午後三時 東京大學新秋리그戰 實況
◇同六時 (名)이야기 大岡文樹
◇同六時三〇分 (大)井上公演藝
◇同七時三〇分 (東)所作愛樂
◇同七時五五分 (東)歌舞伎 紅葉 狩
◇同八時四〇分 (東)라디오小說 伊藤 久男
◇同九時 (東)라디오小說 公前

◇同一〇時 ……一、…… 二、……
歌手 丁元雙 李素香

二、가、자장가……하우저作曲 나、투-레……베 하作曲 다、베니스의뱃노래……며델스
二、……
라、……슈베르트作曲 마、……드르작作曲
피아노伴奏 吳仁植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라라리
歌手 宋萬甲 鄭成淑
◇同九時 映畫이야기『아리따운……』 成東鎬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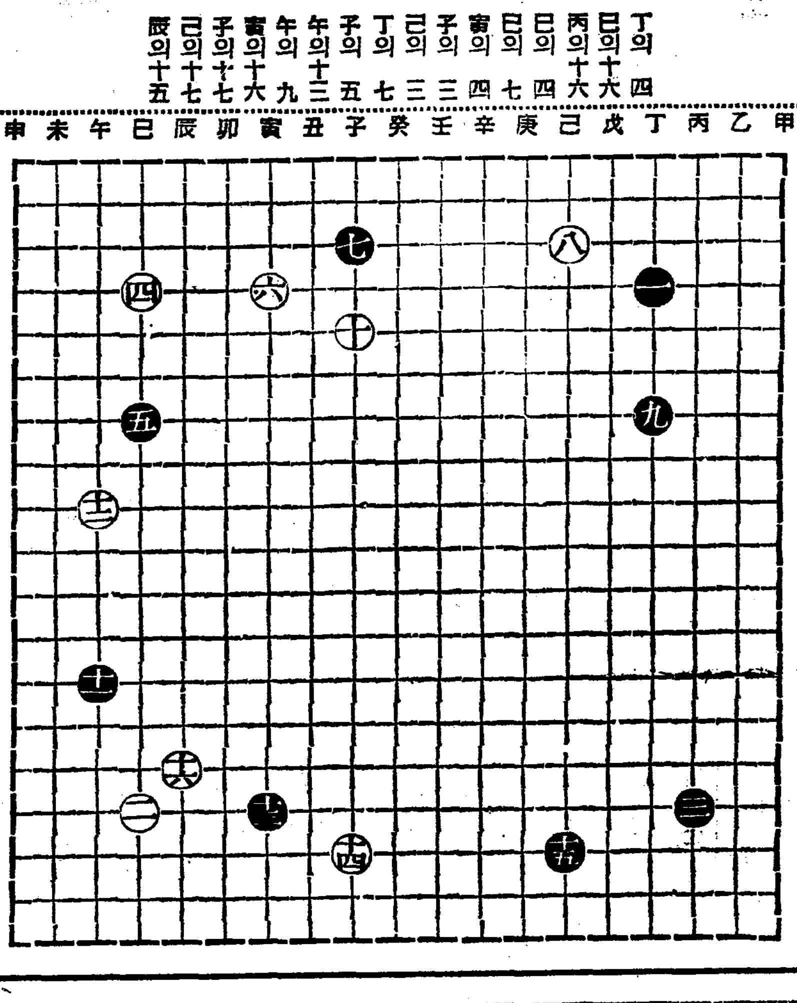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 (東)……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谷…
◇午後〇時五分 歌謠 …外男
◇同六時 …
◇同六時 DK어린이이야기會 中…樂部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高田 太一
◇同八時 (大)漫才 一龍齋花鈴 三遊亭川柳
◇同八時二〇分 (東)義太夫 竹本組太夫
◇同八時四五分 (東)哥澤 哥澤芝小喜代
◇同八時五五分 (東)라디오小說 山本喜久郎 演出

曆

九月廿七日(日) 陰曆 丙子八月小(十二日)
壬子·木·虛·平
●祭祀에 宜함
●秋分二十三日(陰初八日)
●寒露八日(陰二十三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秦極文
黑先 丁奎春



一 丁의四 二 巳의十六 三 丙의十六 四 巳의四 五 巳의七 六 寅의四 七 子의三 八 己의三 九 丁의七 十 子의五 十一 午의十三 十二 午의九 十三 寅의十六 十四 子의十七 十五 己의十七 十六 辰의十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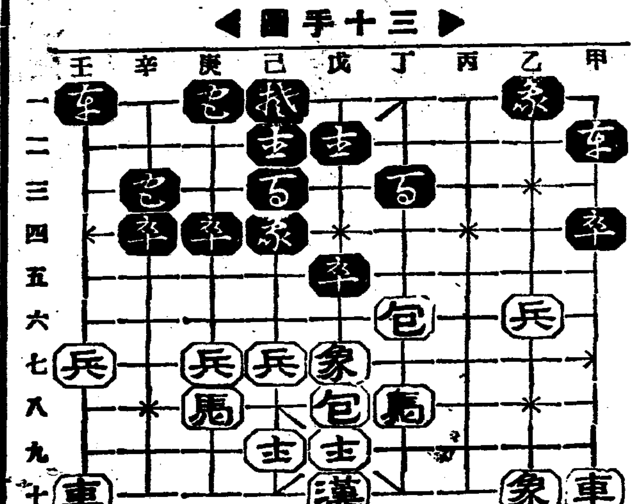
對局者談

黑丁의四 白巳의十六은 新式改良으로 말하나 此亦舊式이다 原是朝鮮式巡將點인족 耳角重鎭에 相當한 位置로 鑑定되고 黑巳의七 子의三과 白午의九 子의十七은 地盤相據에 勢力維持하는 設計로 看做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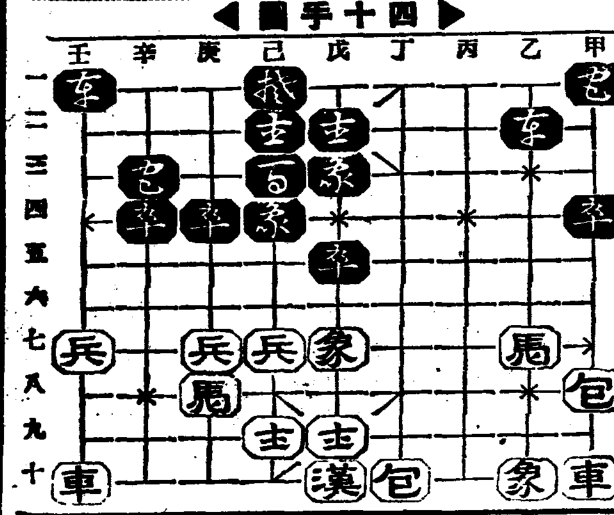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

楚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第三十手圖▶



◀第四十手圖▶



甲三象―乙三 乙六兵―丙六 乙二象―戊三 丙六兵―丙五 丁三象―丙三打兵
丁六包―丁十 庚二象―甲一 戊八包―甲八 丙五象―乙五 丁八馬―乙七打馬

ウテナ 愛用者 優待 大懸賞

우테나

파라마운트着尺은 近代纖維化學에서생긴것으로이것을 스테이불파이바-라고불러 生糸 羊毛 人絹에 代身하는人造羊毛를 原料로하야紡績한것으로 日本紡績株式會社의製品으로 洗練되고 優美한捺染加工을하야理想的인新製品으로 一次世上에나오자俄然全國的으로 大好評을博得하야新時代的인着尺으로서 婦人들에게굉장한賞讚을밧고잇습니다

パラマウント着尺へ 五、〇〇〇反贈呈

賞品

新興織物日東紡績株式會社製品
パラマウント着尺 一反宛五千名
ウテナ手帖 他全部に贈呈

懸賞課題

一、新發賣化粒用비누로 거품이잘일고 高雅한香氣와때가잘빠지는 マンテン비누의製造大舖名은?
二、住所氏名과 朝鮮日報紙名及雜誌名

應募規定

다음懸賞課題의解答을우데나化粧品의空函裏面또는マンテン비누의包裝紙의裏面에 記錄하야반듯이封筒(四匁까지三錢)로 左記로郵送하십시오

東京本鄉二丁目 ウテナ化粧料本舖懸賞係

答案締切 十二月十日
當籤發表 十二月下旬 東京日日 大阪朝日 兩新聞紙上

가을의魅力……
清新의若肌!!

雪白의純質입니다、산뜻하게살결에녹아드러……皮下組織의新陳代謝를旺盛히하고餘分의脂肪을解消하야살결의弛緩을緊縮식히고가을에適當한清新潑溂의美肌를培養합니다、

化粧下로 理想的!!

그爽快한收斂作用에依하야살결을速히整齊하므로……清楚한化粧에理想的인下地가됩니다、

ウテナ バニシングクリーム 雪印
우데나 크림

ウテナ化粧料 マンテン石鹼 本舖 久保政吉商店

不二農場作人代表 平北道에再歎願

秋收期迫頭로速히解決하야달라고

農場의不當處事摘發

【新義州】 귀보지난오일 평북룡천군(龍川郡)에잇는 불이서선농장(不二西鮮農場)소작인 일만여명의 대표가 평북도청을 방문하야 불이농장의 가혹한처사에대하야 딸개조건을 들어진정하엿다는 사실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지난이십사일 다시전긔소작인 대표 리응준(李膺俊)조순국(趙淳國) 김명준(金明俊)박귀재(朴貴在)리진언(李辰彦)등다섯명이 도청농무과를 방문하야 전번진정에대한 도방침을 문의한후 제출한 딸개조건외에 또 농장주의 무리한 처사를 호소하얏는데 이 농장은 누구나 아는바와가티 간사지요 황무지이든것을 십여년을 걸려 개간을하고 가진 애를 써서 지금에는 평북의 옥토지일을 점령한 변수고이십만석을 돌파하고잇는 량답(良畓)이 되엇는데 그런데 불이농장은 이 황무지가 량답이되자 서조선에서는볼수업는 오할잡보라는 소작료와 아무것도 기입치안흔 증서에인장을바뎌두고 종자대비료대를마음대로 징수하며 탈곡기를 쓰지안하여도 탈곡기사용료를 밧고 고초속에 파묻어 잇겟다고 의심하야 고초를 몰수하는등 가혹한 처사를한이외에도 식량대부에잇서 싸래기(半米) 다섯말(五斗)한가마니를 상인에게는 칠원오십전식을 바드나 소작인에게 대하야는 팔원오십전식계산한후에 리자까지 떼히징수하고 가마니바듸(叺蔵)매매에잇서서도 면소에서 한개에 칠십오전식에 사다가는 오전식남기어 칠십오전을밧고 더구나 신의주가튼곳에 와서 한개에 륙십전식 다량구입하야다가는 칠십오전식을바뎌 한개에대하야 십오전이라는 엄청나는 폭리를 보면서도 실비로제공한다고 무지한소작인들을 속여왓다 그리고 추수기에는 소작인들에게 공동작업(共同作業)을 하라고하나 공동작업에대한 재래의 관습과기타여러방면으로 살피어 농장주에게는 리익이되지만 소작인에게는 적지안흔 폐단과 손해가 잇슴으로 이에반대를하고 개인작업을 주장한다고 추수를하지 못하게함으로 이를속히 해결하여달라고 농무과에 재차진정하야 왓슴으로 도에서도 시기가 급박하니만큼 수일내로 처단이 잇슬모양이라한다

道農會駐在技手의 偏僻된處事非難

불이서선농장의 가혹한 처사가 비일비재하야 소작인과의 분쟁(紛爭)이 계속되여잇슴은 누구나 아는바이나 동농장에서는 이에적지안흔보조금을 한 결과 소화칠년부터 평북도농무과에 매년칠천원이라는 돈을주어 도 농무과에서는 이에대한 보수로 기수(技手)두명을 농장(農場)에 주재식히여 농장측과 소작인간의 의견을들어 중재와 타협을식히고 잘못하는 면은 소작령에 의하야 처벌한다는 미명을띠고잇스나 소작인측에 부정이 잇는때에는 직권으로 엄중한처벌도잇고 죽고도 잇지만 농장측의 가혹처사와 소작령에 위반되는일이 잇는때에는 어름어물하야 왓다는것은 재이차문진정한 『가마니바듸(叺蔵)』가튼것도 주재기수가 알고도묵쇄하야 소작인들에게 적지안흔 비난을밧고잇섯는데 이번진정으로 이런한사실도 자연폭로되여 표면화하야젓슴으로 도당국에서도 이에대한 처단이잇스리라고한다

百餘萬坪廢川敷地 二萬細農에貸付

每坪當貸附料金은一錢으로 咸南道서方今調査中

【咸興】 함남도토목과에서는 목하지방하천(地方河川)인 북청남대천(南大川)상류와 함흥성천강(城川江)상류의 하천부지(河川敷地)를 조사중인데 그조사가맛남을따라 전긔량하천의 폐천부지중에서 일백오십만평을 지방에사는 경지가업서 헤매고잇는 세농(細農)약이만여호에 대부(貸付)하야 경작케하리라고한다 그런데 그대부료는 한평에 대하야 일전식으로 정하얏는대 이로말미암아 도(道)에서 수입되는 신재원(新財源)은 일만오천원이나 된다고하는대 경지가 업서서 극도의 생활난을 호소(呼訴)하고잇든 이만여호의세농(細農)들에게는 적지안흔 도움이되리라고한다

群山劇場에小火

【群山】 지난이십삼일오후칠시반경 군산부개복정(群山府開福町)에잇는 군산극장(群山劇場)에서는 때맛침사진영사중 돌연폭음과 아울러 사진영사실(映寫室)에서 발화하얏섯는바불은 즉시필림한권을 소실한후 진화하얏섯스나 일시는 대혼잡을이루웟섯다하며 원인은 영사중절단된 전선(電線)이『필름』에 가다엇기 때문이엇섯다한다

◇……災民同情書報……◇ (上)救濟品四千八百點은第一回로江原道內罹災地에發送하는光景(鐵原) (下)本報西湖支局員總動員救濟品蒐集光景

聖徒들의赤誠 衣類와現金을 安岳支局에寄託

【安岳】 뜻하지도안흔 물란리로 부모를일흔 어린애들의 우름소래와 자식을일흔 어버이들의구슬푼신음소리는 반도지역에가득찬는데 겨우 구제한 그들도살어나갈길조차 아득하야 동포제위의 동정을 바라고잇고 두팔을버려 살길을구하는정경인 이에 감동된 안악읍내 천주교회(天主敎會)에서는 비록교인도 적으나 힘것마음것 정성그대로 교인들간에서만 모흔 현금십오원과 의복일백오십일점을 모아노코 본보안악지국을차저서 그 참경에헤매는 그들에게로 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잇섯다 본보안악지국에서는 아프로도다방면으로 동정금품을 다수히모집하기로 착수하얏는데 안악사회의다수동정을바라며 판팔리김용승(板八里金庸升)씨는 현금이원을 도한본보지국에긔탁하얏다 동포에게보내어달라고긔탁하얏다 또동리엽습청년회 아동일동도 푼푼히 모흔돈이원사십전을가지고와서 재지에 보내어달라고 본보안악지국에 긔탁하엿다

生林上東災民에게 第二次로配給

【金泉】 재해를수해에 재해군내의 재해지인 생림면(生林面)상동면(上東面)에 수해당시로부터 금까지 우리구호반은 손을끈치안코 환자가 발생될때에는 의사를출장시켜 진찰한후 시약하엿스며 식량이 업슬때에는 식량을 배급하엿다는것은 귀보한바이다 지난칠일에는 제삼차로 그들에게필요품인 의류일천사백여점을 상동면내 재민에게 팔백오십여점을 생림면 리재민에게 배급하엿는바 그들은 우리구호반외 계속적활동에 감사함을 마지못한다고한다

上東面長 [illegible]氏 한두번이 아니고 련삼차나 위문과구제품으로서 회의개설을 다하신 귀사에 대하야 감사함은 엇더타말하면 조흘지모르겟습니다 그러고 귀사의 명예한보도로인하야 만천하에서 사선에달한 우리를 위하야 활동하신분에게도 귀사를 통하야 감사하다는말슴을전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운운

衣類四千八百點

道內罹災地에發送

鐵原郡民의同情熱

【鐵原】 철원읍에서는 다른도에서 볼수업는 극심한 수재가 강원도안에잇슴을 극히 아파하는 마음을 일반이 금치못하야 본보철원지국장 조용규(趙容奎)군을 도내 수해지에 파송하야 리재동포들을 위문신발케하고 각관공서원 삼십여명이 출동하야 구제품을 모집한결과 의류 사천칠백팔십구점에 달한바 아직도 날마다 남녀로소가 눈물을 흘리며 수해지로 보내달라고 본보철원지국에 긔탁하야오므로 재위선 지난 십팔일 현재로 제일회로 발송하엿는데 이구제품은 일반의희망에의하야 강원도내수해지로 발송하엿스며 압흐로 이어서 의연금도 모집하리라는바 일반은활동을 잇기를바란다고한다

金東喆氏美擧

【鐵原】 철원군내 일선의원장 김동철(金東喆)씨는 금번강구항(江口港)과 그외부근 참변을당한리재민중 백여명을 무료치료하야 기사회생된자가 만타는바 리재민과일반인사들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道民의負債總額 三千九百萬圓

每戶當平均이一百五十餘圓

忠南農村의疲弊相

【大田】 조선의농촌은 나날이피폐상태에빠져 소지주는 자작농으로자작농은 소작농으로 소작농은 자유로동자로 몰락되는현상이고 농촌의부채는 해를따라 느러가는터이다 충남도내에 잇는은행(銀行)과 금융조합(金融組合)에서 팔월말일까지 대출한것을보건대 은행에서 대부한것이 이천삼백팔십삼만 이천칠백삼십칠원이고 금융조합에서 대출한것이 일천오백십만일천오백구십일원으로 합계삼천구백이십삼만 사천삼백여원이다 그것을총납농호수 칠천여호에 분배한다면 매호당 부채가 일백오십이원의 비례로 은행과 금조의 대부액이외에도 개인의 고리채와척식(拓殖)무진(無盡)등의 부채를전부한다면 실로 놀나지안흘수업는 거대한 수자를 보이리라고한다

羅津港水道 一部年內送水

【淸津】 일즉이 긔채신청중에잇든라진상수도(羅津上水道)는 요지음 인가가나오자 즉시철관(鐵管)을 주문하엿슴으로 느저도변내에는 급수하리라는바 변내급수구역은 정거장아페서 소학교압까지 연장시킬예정이라한다

岐陽地方에 傳染病大流行

【岐陽】 기양지방에는 장질부사가 류행하야 사망자이상인듯내 엿는데 지난이십사일에 기양보교(岐陽普校)에서는 재학생중성홍열(猩紅熱)에 걸린 아동사사인을 발견하고 즉시 소관주재소에 손독을 청하얏다

小台網이漁道遮斷 壺網業者가困境

小台網漁獲期六月로改定等 代表、關係當局에陳情

【元山】 영흥만에서 호망어업(壺網漁業)을하는 어업자들은 지난 이십이일에 원산부송흥리(元山府松興里)박영옥(朴永玉)씨집에 회합하야 근래소태망(小台網)이 자기들의 생명선인 호망의어도(漁道)를 끈허서 수만흔 호망어업자의 사활문제를 야긔하고 잇스니 이소태망의 어획긔를뉴월로 개정하야 달라는 결의문을 작성하야 관계요로에게 제출하는일방 지난이십오일에는진정위원을 도청에 보냇다。

決議文

소태망은 우리들호망(壺網)의 어도(漁道)를 차단해서 점차호망의 어획고는 감소의 한길을 것게되여 우리들의 사활문제가 되게하얏다。 소태망은 일개월간에 청어(鯖)를 일약사천원의수양을함에 불구하고 호망은 겨우 월오십원이상 최고 이백원의 빈약한 수입박게업다 이러한비참한 상태에 잇는것을 관계당국에서도 그저 방관할수업다고 생각한다。 본래 소태망은 정어리(鰮)의 어장(漁場)으로서 청어의 어장은 아니다。 현하정세는 청어가대게 삼월하순으로부터 사월하순까지가 최성회유긔인즉 소태망의어획긔를 뉴월부터라고 하야주기를 간원한다 우리들은 사정을 량찰하고 속히 최후까지 죽엄을결하야 본요구조건의관철을 긔하기를결의한다

全朝鮮脚戲戰 優勝은大平鐵工所

【紅峴】 황해선홍현번영회주최와 본보함북지국후원의 전조선 각희대회는 지난이십이、삼、사삼일간 홍현연전란장에서 개막되엿는대 결국 최후의일개관은 대평철공소(大平鐵工所)에서 일、이、삼 등의우승을하엿다한다

學用品代節約 災民同情救助

【陜谷】 경의선룡억전 지도공

奇特한容熙姊妹 衣類와鉛筆을 水原支局에寄託

【水原】 수원읍내에 거주하는바 만진(朴萬鎭)씨의 장녀용희(容熙)(一)이녀용성(容成)(六)의자매는 금번삼남 지방의풍수해리재민을 동정하야 상하의복십오벌과 공책이십삼책、연필두다스를가지고 본보수원지국을 차저와서삼남이세동포중나와가튼어린동무들에게 보내달라고

現金八十七圓也와 衣類百餘點寄託

【信川】 순진한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남조선풍수재의 참담한 정상에 동정하는 미담! 신천농민학교에서는현금십원삼십오전과 신천경신학교생도일동의현금십일원칠전 신천경신유치원의 아일동의 현금팔원팔십전과 의류사십칠점 신천공립보통학교생도일동이 현금사십륙원팔십삼전과 의류백사십오점 신천천주교회에서 현금십원을 각각본보지국에 가지고와서 이는사소하나마 우리어린이들마음으로 나온 동정금품이오니 본사를통하야남조선리재민동포에게 보내달라고 긔탁하얏다고한다

同情金品遝至 本報元山支局에

【元山】 삼남리재민에게 보내달라는 수해의연금품이 본사원산지국에 답지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사일에도 다음과가티 학교와친목계에서 구족에 간곡한 동정금품을 보내왓다

普惠女子館에서 現金과衣類를

원산보혜녀자관 선생과생도들은 강원도재지에 『거포』목사를 직접파견하야 자긔들이 모은구제금품을 논아주게하드니 지난이십사일에는 또다시 삼남재지로 보내달라고 현금십칠원사십칠전과 의류오십삼점을 본사원산지국에 의탁하야왓다

探勝旅行中止 金二十圓寄託

원산상우와친목계(無睹親睦契)원들은 숙망으로나려오든 천하명승지 금강산을 탐승하기위하야금년가을에 떠나고저하얏스나 강원도일대에 대홍수가나서 수만흔 생령이 도탄에들고잇슴을 본보를통하야알고 려행을 중지하는동시 금이십원을 본사원산지국에 의탁하야 특히강원도재민에게 보내달라고 그계장최석정씨와 간사김영필(金永必)씨가 지난이십사일 본지국으로차저와왓다

元山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十月一、二兩日

▲場所 元山中里二洞海面三玉鐵工所埋立地

◇主催 大元俱樂部

◇後援 元山體育會、本報元山支局

愛慾의彼岸 【111】

李光洙 作 金康稔 畫

배바위에 다달은 때에는 헤련의 가슴에서 무서운 마음이 슬어지고말앗다。 헤련은 해발 륙천척 비로봉 머리에 섯다。 여긔는 아직도 달이 잇섯다。 달은 영랑봉에 올라안즌것처럼 동쪽을 바라보고 잇섯다。

동해바다는 구름에 덥힌 모양이엇고 신계사 골짜구니는 압흑 그믐권이엇다。 구름이 잇는지 업는지도 알수업게 칠흑가티 어두엇다。 일출봉 월출봉들이 머리만을 달ㅅ빗 속에 내어노코 잇섯다。 비로봉、백마봉들은 꿈ㅅ속가티 엇는듯 마는듯하엿다。

안개라고 할까、 가루 구름이라고 할까、 회색 긔운이 동풍에불려서 휘휘 지나갓다。 문득 영랑봉에 올라안젓던 달이 업서젓다。 구름에 가리워젓는가、 아주 저버리고 말앗는가。 감감해젓다。 일출봉쪽에 샛별만이 혼자서 푸른 빗츨 뿜고 잇섯다。 그것조차 가끔 구름속에 들어갓다。

일순간、 실로 일순간에 천지는 흑암세계가 되고말앗다。 회색 구름이 헤련의 몸을 가리워서 지척을 분변할수가 업섯다。 바로 눈 압헤 잇는 배바위조차 안 보이는 때가 잇섯다。

헤련은 무서워젓다。 마치 죽엄의 그늘 속에 혼자 잇는것 가탓다。 빗츤 죽엇다。 찬 바람과 어두운 안개뿐이엇다。 헤련은 마음ㅅ속까지 어두워지는것 가탓다。

헤련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압헤 잇스니、
슬픈 일을 만히 보고
큰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야
항상 빗츨 보도다』

하는 찬미를 불러서 마음을 진정하려하엿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이 그늘을 헤처주소서 하고 빌엇다。

『천지간 오족 나 혼자』

헤련은 이러케 중얼거렷다。

그러나 헤련의 눈아페는 빗치 나타나지아니하엿다。 구름과 안개만 더욱 더욱 짓터젓다。 바람이 바위에 부듸처 웅、웅 하는 소리를 내엇다。

헤련의 뺨을 스치고지나가는 선뜩선뜩한 구름。 숨이 막힐듯한 어두움 차라리 밤ㅅ중모양으로 캄캄햇스면 하엿다。 그러나 허여멀어케 빗치 잇는듯하고도안 보이는 어두움은 헤련을 더욱 괴롭게 하엿다。

잇다금 구름이 갈라지며 맷백척인지 맷천척인지 모를 깁다란 구멍이 뚤릴때에는 더욱 무서무서하엿다。

『압 길이 막막한 내 인생』 하고 헤련은 한숨을 지웟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마음을 붓치고 살아갈것인고?』

헤련의 마음에는 아모 욕망이 업섯다。 모도시들하엿다。 사는것도 시들하고 그러타고 죽는것이 실치도 아니하엿다。 헤련의 눈에 띄우는것은 모도 김빠진것뿐이엇다。 금시에 다 부서저버려도 아까울것이 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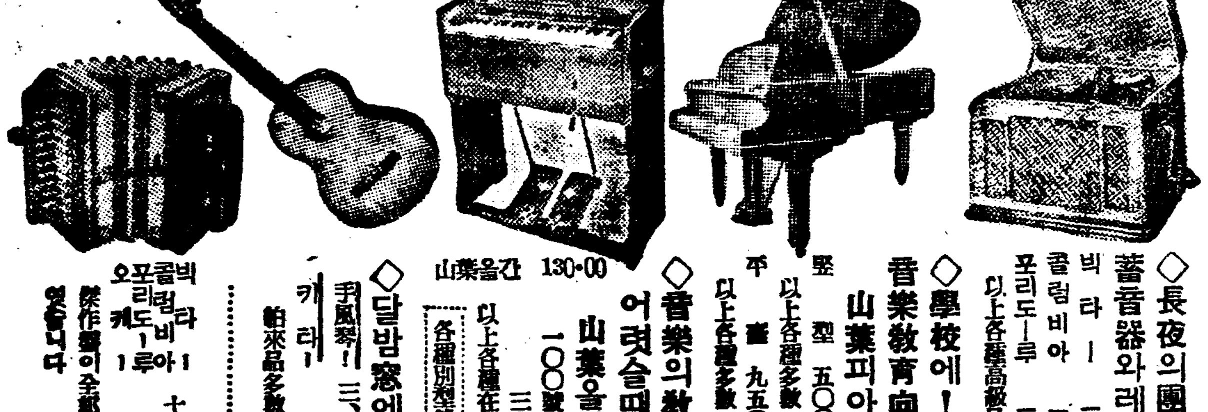
헤련은 배바위에 몸을 던젓다。 바위는 식은 땀을 흘리는 임종하는 사람의 몸모양으로 축축하고 선뜩하엿다。

이때에 바위에 부듸치는 지팡이 소리。 그리고

『여긔가 배바위렌데。 원 지척을 볼수가 업스니깡 어듸서노래ㅅ소리가 낫는데。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하는 소리가 낫는데。 이 새벽에 누가 나보다도 먼저 이비로봉 꼭대기에를 올라와서 노래를 불럿담、 그 여자가。 헤련이나 아닌가』

이러케 중얼거리는 소리가 헤련의 귀에 들렷다。 그것은 낫익은 음성! 그것은 분명강선생의음성!

헤련은 그래도 의심이 나서 몸을 바윗그늘에 숨기고 가만히 귀를 기울렷다。



◇長夜의團欒은 蓄音器와레코-드
빅타- 三五圓부터
콜럼비아 一五圓부터
포리도-루 三○圓부터
以上各種高級品多數

◇學校에! 家庭에 音樂敎育向上으로 山葉피아노
竪型 五〇〇圓부터
平臺 九五〇圓부터
以上各種多數

◇音樂의敎養은 어렷슬때부터 山葉올간
一〇〇圓
三〇圓부터
以上各種在庫
各種別型錄送呈
山葉올간 130•00

◇달밤窓에기대여
手風琴! 三、八〇부터
카타-! 七圓부터
舶來品多數入荷

빅타 콜럼비아 포리도-루 오케 레코-드 十月新譜
傑作盤이全部具備되엿슴니다

京城鍾路二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四八番

리리안 재봉실 편수실 푼수실
생실제조
首陽店 京城仁寺町七六
電話光化門一一六五 振替京城一七四八三

皮膚病良藥
테-무水는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病原을殺滅하고病原을消하야治癒를速히하고
◎消毒作用으로 患部의再傳染을防하고
◎收斂作用으로 患部의滲出分泌를消하야治癒케하고
◎滑澤作用으로 皮膚를潤滑하고滑澤하게한다
皮膚病良藥 피부병량약 테-무水
●땀띠 ●옴 ●습진 ●두드러기 ●버짐 ●무좀 ●옴 ●부스럼 ●진물은데 ●가려운데 ●부름 ●힌어루러기 ●비풍 ●여드름 ●주근깨 ●농가중 ●脫肛門지질은데 ●옷올은데 ●물집터진데 ●벼룩 ●모기、 깔다귀、 빈대毒虫의刺傷 皮、脂肪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알푸지안코 눈에안띄고 냄새업시用法이 簡單하며 速히낫소
테-무水藥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萬一品切時는 代金을添附하야左記發賣元으로注文하시라、即時送藥함
模倣品이만히잇사오니 테-무라指名하십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村町 東京藥院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大阪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 電話天王寺三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當選謝禮 本人이今般釜山府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사옴기는有權者여러분의聲援이라고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白石馬太郎

當選謝禮 本人이今般釜山府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사옴기는有權者여러분의聲援이라고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金元達

當選謝禮 本人이今般釜山府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사옴기는有權者여러분의聲援이라고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辛泌

新義州府本町 金義明

新義州府眞砂町 國境通運株式會社

新義州府榮町 卓昌河

新義州府外光城面 姜利璜

新義州府老松町 文化堂

新義州府榮町 朴龍水

新義州府眞砂町 高秉哲

新義州府榮町 李熙廸

新義州府老松町 張龍浩

新義州府老松町 朴正堯

新義州府老松町 崔商會

新義州府老松町 朴榮徽

新義州府榮町 趙尙鈺

殖銀東拓利子 大體로三厘引下

十月一日부터實施

▲殖銀 殖産銀行에서는 左記와如히 貸付利率을 十月一日부터 實施키로 發表하엿다

一、一般產業資金貸付及農工業者十人以上連帶貸付 六分七厘(三厘引下)
二、朝鮮中央政府의補助가잇는事業에對한貸付 六分二厘(三厘引下)
三、財團擔保貸付 六分二厘(三厘引下)
四、公共團體貸付 五分(五厘引下)
五、水利組合貸付(年度內一時償入金을包含) 五分五厘(五厘引下)
六、耕地改良及開墾事業法人及連帶事業新作組合貸付 六分二厘(三厘引下)
七、農業改良組合資金
가、一般貸付 五分八厘(二厘五毛引下)
나、農事貸付 四分九厘(二厘五毛引下)

▲東拓 東拓에서는 二十六日에 如左히 長期貸付金利의 利下를 發表하고 十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다

一、不動產擔保貸付 六分七厘以上(三厘引下)
二、公共團體貸付
水利組合 五分五厘以上(五厘引下)
其他 五分以上(五厘引下)
三、水利組合年度內一時貸付 五分五厘以上(五厘引下)
四、公共團體年度內一時貸付 五分以上(一分引下)
五、連帶無擔保 有價證券擔保 其他不動產上權利擔保 財團其他確實物件擔保貸付 六分七厘以上(三厘引下)
六、政府補助가잇는事業資金工場鐵道財團擔保貸付 六分二厘以上(三厘引下)
七、產業에關한組合貸付 六分二厘以上(三厘引下)
八、手形割引其他方法에依한貸付 六分七厘以上(三厘引下)
九、產業組合等財團擔保貸付 八分二厘以上(据置)
十、土地改良資金
自己資金五分五厘(五厘引下)
預金部資金四分四厘(二厘引下)
十一、農事改良資金
가 公共團體
自己資金五分(五厘引下)
預金部資金四分八厘(据置)
나 公共團體以外
自己資金六分八厘(三厘引下)
預金部資金四分八厘(据置)

利差顯著히 接近

殖銀、東拓에서는 別項과가티 長期貸金의 利下를 斷行하엿는데 今年再度利下를 行하야 今回의 利下에 依하야 日本內地勸銀의 同種貸付와의 比較는 條件이 相異함으로 一律로 말할수는업스나 大體로 勸銀의 建物宅地擔保貸는 年賦六分七厘 定期六分四厘로서 殖銀은 同率이다 그리고 田畓擔保는 勸銀이 五分八厘임으로 九厘의 利差가잇다 도리어 低下되게 되엿다 殖銀 東拓에서는 一厘乃至四厘의 利下가 되엇다 그러나 朝鮮의 東拓이 再利下한것은 相當한 斷行으로 需要者에게 與하는 好影響은 적지안흘것이며 殖銀林理事는 如左히 말하엿다

朝鮮者는 今春에 低金利에 順應하야 長期貸의 利下를 行하엿스나 最近의 資金코스트는 低下와 一般의 希望에 依하야 再利下한것으로 總督府의 認可를 어덧다 大體三厘引下인데 朝鮮產業에 一段의 拍車를 加하면 조켓다

佛國金本位事實上停止

英米의 支持어더 平價切下를 斷行

切下率 二割五分五厘乃至 三割四分三厘五毛

【巴里二十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 英、米兩國政府와 協議한 結果 兩國政府의 支持下에 平價切下를 斷行키로 決定하엿다 藏相오리올氏는 二十六日 午前一時十分 右決定에 對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法貨의 純分을 改訂하야 法貨純分 千分의 九百의 金을 四十九미리구람 乃至 四十三미리구람 內로 定함
一、百億法의 爲替安定基金을 設定하야 外貨에 對한 法貨의 安定을 期함
一、流通中인 金法貨를 回收할 權限을 二十八日 議會에 要求함

【巴里二十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 法貨의 金純分을 品位十分之九의 金 四十九미리구람 乃至 四十三미리구람으로 引下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를 發表하엿는데 現在의 法貨金純分은 品位十分之九의 金六五、五미리그람이므로 右는 二割五分五厘 乃至 三割四分三厘五毛의 切下에 當하야 法貨를 이로써 安定케하려는것이다 그런데 右는 白耳義側에 본바든것으로 白耳義는 昨年三月 벨가貨를 二割五分으로부터 三割에 安定한다는 旨를 發表하야 一個年의 經過를 보고 今年四月부터 正式으로 二割八分으로 決定한것이다

는二十五日午後에 至하야 倫敦外國爲替市場을 全혀 混沌狀態에 陷케하엿다 弗貨에 對한 買物은 狂氣와 가티 殺到하야 英米크로스는 五弗三仙四分之一로 前日에 比하야 一擧에 二仙八分之一의 大暴落으로 弗高磅低를 反映하엿는데 一方法貨에 對해서는 現物高先物低의 背反的情勢가 展開되어 英佛爲替三個月先物의 레-트는 前日의 八十六法 八十三法 六十法까지 暴騰하야 法貨의 前途에 極度의 不安을 反映하는 一方 英佛레-트는 七十六法 八十一로부터 一時四十三法까지 落하야 法高磅低를 告하게되엇다

金兌換直時停止

金又는外貨債『모라』

一、金 又는 外貨債의 債務는 一切 모라토리암을 實施할 法案을 二十八日 議會에 提出한다
一、佛國銀行은 곳 金兌換을 停止한다

【巴里二十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 法貨切下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接近하야 法貨對策에 關하야 協力할것

三大爲替市場 兩日臨時休場

【巴里二十五日發同盟】 하바스通信社의 聞知한바에 依하면 法貨平價整調에 關聯하야 巴里、倫敦、紐育의 三大爲替市場은 二十六日(土曜日)及 二十八日(月曜日)은 臨時休場키로 決定하엿다고한다

法危機襲來로 買氣弗에殺到

【倫敦二十五日發同盟】 法貨危機

和蘭政府는 現平價堅持

【암스텔담二十五日發同盟】 和蘭政府는 二十五日夜 閣議를 開催하야 通貨政策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길다의 現平價를 끗까지 堅持하겟다는 旨를 如左히 發表하엿다
國際通貨觀은 新動向을 示하고잇스나 和蘭政府는 從來의 通貨政策을 堅持할 方針이다

弗貨도 切下?

米財務省重大關心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 米國財務省은 法貨의 動向에 重大關心을 示하고 佛國政府의 對策如何로는 弗貨의 擁護上 곳 應急措置를 取할方針이라고한다 財務省은 目下 沈默을 지키고잇스나 法貨의 動向如何로는 左의 三項의 措置를 考慮中이라고한다
一、佛國政府가 法貨의 平價切下를 行할境遇에는 米國도 對抗上 弗貨를 再次切下할것
一、佛國政府의 法貨對策이 金을 離치안는限 구지 佛國政府의 政策을 妨害치안을것
一、도-자 英國政府와

米、英、佛三國間 通貨安定協定成立

◇米모겐소財務長官言明

【華盛頓二十六日發同盟】 모겐도 財務長官은 二十五日英米佛三國間에 通貨安定協定이 成立되엿다는 旨를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米國政府는 英佛兩國政府와 협께 法貨의 混亂을 防止하고 國際爲替市場의 擾亂을 防止하기 爲하야 適時可能한限의 方策을 講究하기로 決定하엿다
佛國政府는 以上의 見地에 依하야 國際收支를 調節하야 議會에 提案할 方針이다
米國政府는 英國政府와 同樣으로 右決定에 依하야 國際經濟關係가 一層密接한 基礎에서 安定되기를 期待하고 이 決定을 國際爲替에 對하야 不當한 便宜를 圖하려는 努力을 阻害치 안을것이다

을 歡迎한다 佛國政府가 法貨切下를 行한 境遇 英米兩國政府는 이를 協力이 絶對必要하다는 確信하에 兩國의 通貨와 法貨와의 關係가 安定되지못하면 切下의 效果는 거이 空無에 歸할것이다 英米佛三國政府는 今回의 協定을 締結하는 同時에 本宣言에 明示한 政策을 實現하기 爲하야 他國政府가 協力하기를 熱望하며 國際爲替에 對하야 新的으로 不當한 便宜를 圖하려는 企圖하는 經濟關係의 安定을 阻害치 안을

聲明全文

三國同時發表

【倫敦二十五日發同盟】 英米佛三國政府는 通貨安定協定을 締結하는 同時에 二十五日午後十一時倫敦、巴里、華盛頓에서 同文聲明全文을 發表하엿다 聲明全文은 如左하다
部一、英國政府는 米佛兩國政府와 함께 平和를 確保하고 國際經濟關係의 秩序回復에 最善의 寄與를 할것이다 諸條件을 育成하야 世界의 繁榮을 促進할려이다
第二、勿論 英國政府는 國際通貨政策을 決定함에 當하야 英本國과 英帝國繁榮에 關한 諸條件을 充分 考慮에 넣지안으면 안된다 米佛兩國政府도 同樣의 考慮를 拂할것이다。

안키로 米國政府는 確信한다 英國政府는 過去數個年의 方針에 基하야 同樣의 國際爲替制度의 均衡을 維持하고 自國의 通貨政策으로 制度에 어떠한 支障을 惹起치 안토록 努力할 決意가잇다 上의 方針은 各國政府共通의 目的에 貢獻할것을 英米佛三國政府는 確信한다
第三、佛國政府는 旣定대로 重要通貨의 安定을 鞏固한 基礎우에 確保하기爲해서는 更迭 各種經濟機構에 恒久的 均衡을 確立할바게업다고 하는바 佛國政府도 右見解에 基하야 議會에 通貨再調整을 提出하겟다는 旨를 英米兩國政府에 通告하엿다 以上 佛國政府의 決定으로 國際經濟關係는 다시 鞏固한 基礎우에 安定될것을 思惟하고 英米兩國政府는 衷心으로 右決定을 歡迎한다 今回의 通貨三國協定으로 國際爲替의 基礎에 危險을 惹起할 憂慮가 잇슬 境遇에는 英米佛三國政府는 以上의 事態를 防止하기 爲하야 互相 協議할것을 聲明한다
第四、上述한 政策을 遂行은 國際貿易의 發展에 關聯이 잇슬것은 三國政府의 確信하는바인데 究極에 잇서서 現在의 輸入配定制及 爲替制限政策을 撤廢할 目的으로써 即時 實施할 處置를 明示할것
第五、英國政府는 米、佛、兩國政府와 함께 現聲明에 明示된 政策을 實現하기 爲하야 各國政府도 이에 協力하도록 要望한다 三國政府는 모다 不當한 爲替競爭으로 漁夫의 利를 거두는것을 一掃하고 安定된 經濟關係再建을 期하는 三國政府의 努力을 阻害하는것이 된다 行動을 하지안흘것을 信賴한다

重要商品界事情

銑鐵、鋼材生產 七月도續增加

商工省調查=十一年七月中의 日本內地及朝鮮、滿洲各地의 銑鐵과 鋼材生產額은 大體增產傾向을 示하엿는데 一月以後累計가 前年보다 減少된것은 軌條뿐이엇다(單位瓲、今印減、가는日本內地와 朝鮮、나는滿洲)

種別	七月	一月以降累計	前年累計比較
銑鐵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塊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鍛鋼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片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販賣向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鍛鋼品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壓延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材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厚·中板 七以上·七以下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薄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板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鍍力板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條鋼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形鋼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軌條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線材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帶鋼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나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日爲替大暴落

【紐育二十五日發同盟】 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야 二十九弗 二十六仙으로 二仙이 暴落하야 法高磅低를 告하게되엇다

全滿農作豫想

十月二日發表

【新京電話同通】 滿洲農作物第二回豫想은 十月二日發表코저 目下產業調査局에서 各方面의 調査集計中인데 七月一日現在의 第一次調査에 比하야 南滿地方은 順調인 天候로 增收가 豫想되나 北滿은 雨量過多로 全滿을 通하야 第一次調査와 大差업는터이다

山田遞信局長渡滿

山田遞信局長은 今井電氣課長 村上經理課長을 帶同하고 來二十八日 午後七時四十分 京城驛發列車로 渡滿하야 約十日間豫定으로 新京、哈爾濱、奉天을 視察할터인데 今回의 渡滿은 遞信局이 明年度에 着手코저하는 鴨綠江水路發電調査에 對하야 滿

稅關檢查協議

總督府에서는 二十六日 午前九時半부터 第三會議室에서 大野政務總監以下 林財務 三橋警務、財務、殖產局長以下 鐵道、警務、稅關、殖產各局關係官이 參集하야 稅關檢查를 主題로서 朝滿間에 橫在한 稅關檢査와 密輸根本對策에 對하야 總督府의 態度를 協議하고 同十一時半 散會하엿다。

十六仙低이오 買二十九弗二十二仙으로 二十八仙低이다

東京爲替(二十六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三 買 二十九弗十六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大阪爲替(二十六日)
對米 賣 二十九弗四分一 買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中旬局線荷動

九月中旬鐵道局線貨物의 一般荷動은 大槪活況을呈하고 特히 米穀類의 出荷가 顯著하얏는데 이것은 收穫期를 압두고 殘存米의 賣出에 依한것으로 建築材料、鑛石도 依然增加一途이엇다 季節向雜貨及石炭等의 荷動이 만허 中旬輸送成績은 二十二萬四千八十七키로톤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萬九千九百六十八키로톤의 增加이다

金剛山電氣會社 第三發電所完成

金剛山電氣에서는 第三發電所(江原道通川郡碧養面新日里)의 建設에 着工中이든바 大體完成되어 二十八日부터 通水키로되엇다 水한後는 來月中旬부터 發電과 送電을 開始키로되엇는데 發電能力은 二千六百키로로同社全能力은 一萬三千四百五十키로로되엇다 右電力은 現在京城電氣로부터 買戾되고잇는電力을 補充코저하는것으로 江原道一帶의 鑛山及 自家用에 供키로되엇다한다

朝窒石灰窒素賣出

窒素肥料賣出會社에서는 朝窒石灰窒素工場에서 製造中인 粒狀粉狀石灰窒素를 十月十八日午前第一回賣出할터인데 日本內地의 石灰窒素共販品보다 多少低價로 發賣될터이로 朝窒의石灰窒素製造能力은 初年度四萬噸이라한다

滿洲과 協調함것으로 同社의 使命이 잇는것으로 朝鮮肥料界의 販賣에 資與하자는 好機로서 交涉에 着手할것이라한다

經濟寸鐵

〇土木協會員三十五組決定=京城土木建築協會에 加盟한 會員은 三十五組(在京城)로 決定하엿다고

〇經濟界消息

佛蘭西는 畢竟 三割內外의 平價切下를 斷行 弗平價切下도 豫想된다고

〇英、米、佛三國間 通貨安定協定이 成立되엇다하나 果然 安定될가?

〇殖銀과 東拓은 利下發表 勸銀에 比하야 利輸가 接近되고 朝鮮에도되어 低率이것이엇다하나 그것은 시시한것

〇田畓의 貸付利率은 아즉도 九厘의 利差가잇스니 第一貸付가만흔것은 高率

商況 【廿六日】

株式 去就未定 鈍狀

前場伸惱 前場에는 東新百三十五圓五十錢으로 四十錢低 日產七十八圓九十錢으로三十錢低에寄付하엿는데 日產은다시七十九圓八十錢으로 高價七十九圓二十錢에 止揚하엿스나 東新은百三十五圓으로에서 揉合하다가 百三十五圓九十錢에止하고 大新七十圓八十錢 鐘新百七十二圓五十錢 朝新三十六圓六十錢의保勢이엇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追擊賣要警戒

增稅案內容의發表와 上海의突發的事件을契機로 重大材料에直面한 市場의 兩種의무거운空氣가 市場을 뒤덥고 警戒의 態勢를 防止하기 爲하야 東新은 百三十五圓까지다 上伸하엿스나 中國側態度如何로는 日中事變을突發할 悲觀的空氣가 重大局面에 逢着하엿스니 安心할수는업서 警戒하엿스니

日產의解散說

日產株는 昨前場에도 買高의 量을 보여 八十圓臺로 上放하엿다는데 今前場에는 七十八圓九十錢으로 三十錢低에 寄付하엿스나 다시 七十九圓七十錢을 回復하는 等 日產을 買揚하고 잇슴이 宛然한바 이는 이라는說이 流布되어 解散價百三十圓은 確實하고 또 單히 一割配當의 利廻로보더라도 低하야 買餘地가 만타는 觀測에 底意擊攘한것이라고 한다

朝取實物取引

▲吉拓實 [illegible] ▲朝鮮製練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北極太石油新 [illegible] ▲帝麻新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 財界情勢警報 傍觀하야 賣人氣가 安定되는同時에 內國債는 모다 底縮의 形이되엇스나 一兩日來 急激한 不勢를 밟든 米貨債는 外貨에 對한 課稅가 意外로 輕하다는 說이 傳하자 漸次 反撥步調로 轉하야 六分半一圓五分半一圓三十錢이 反騰하엿다
▲甲五分利一〇〇、七〇▲二回四分一〇〇、七〇▲二回四分一〇一五▲佛貨四分一九七、二〇

期米 颱風發生 反撥

前場續高

前後場阪地二十九圓四十六錢止와 共히 二十七圓三十九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값 二十九圓 七十三錢인 二十七圓大高를 擡揚하고 二十七圓五十一錢이 十二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二十六十九錢으로小弛하엿다가 七十五

六感

◉…昨今兩日은 當限戰이 大壯觀이걸 再昨日에 二十九圓八十錢이든 當限이 昨前場은 二十八圓二十錢까지 瓦落하고 今朝에는 二十九圓〇臺로反撥◀昨朝의 反落은 買方의 投賣로 그러되엿고 今朝의 反撥은 瀛落의反動◀그러나 아프로 一三日바거날지아니한 最後一戰이 果如何?買方으로서는 受米後의 處分이 問題일것이며 賣方은 渡米의 蒐集이 完了되엿든지가 問題◀先限戰은 此處에서 一段落을 지은모양이나 十二限의發會가또 何如할지?아프로 秋市勢의興味가 多할뜻

◉…前日에는 二十五圓까지 込試로 瀏新이 急騰하드니日產은 解散說이 돌아 買氣를 加하고잇는듯◀그러나 아무튼 日中關係의 重大局面에 一條의 光明이 보이기까지는 活潑한 場面을 보이지못할모양◀그러타고 內面으로 무서운 彈力性을가진 市勢을 賣乞迫擊할수도업스매 警戒裡에 伸縮하고잇는光景 ◀日中問題만 解決되면 爲先 惡材料는업슨것 갓다만……

期正一齊昂騰

昨前場의 當限은買方의 恐怖的投買로 阪仁共히 正米市勢도 此에追隨하야 共히 昨日當地三等玄米는 二十八圓三十錢 當限은二十八圓八十錢으로 反戾하엿다 그러나 當限은 아프로受方의 態度와 渡方의 作戰如何에 依하야 左右될모양인데 丸ウ店을本尊으로한 買方 力武精米所側은 受米를 將行할意思이며 賣方金大店은 鮮山、木浦兩地에 亘하야 方今 賣米를 整備中이므로 今日의 興味는 果何如

㊂三等二九、五〇 四等二九、二〇
〇一等白米 二二、九六

颱風發生으로 市勢俄然威應

後場續高 後場은 二十七圓六十五錢으로 五錢高로 場을始한後 一二節六十錢으로 五錢에 止揚하다 結局六十錢

新甫十二限은 當地三百餘丁의 瓦落을 告하야 買方의 投物과 賣方의 利喰賣로 昨前後場에 亘한一大混戰을 惹起한後이라 市勢는 一段落을 告한感이 업지 아니하며 때마침 今朝에 至하야는 阪地는 降雨東京은 曇天 又는 南洋方面에 颱風이 發生하엿슴을 機로하야 軟派에게 脅威를 주든 買方은 將士軍米의 馬力을내어 買占不辭할것으로 阪仁共히 四十丁이 市勢를 惹起하엿다 實로 陰陽生의 原則그대로모든 條件이 極히 好轉하는 狀態를 나타낸것이다 그러나 大阪의 降雨는 足히 憂慮할 것이 아니라 軟派는主唱한다 此反撥은 中間呼吸位置에서 五、六十丁의反落을招한 그反動인지 또는 昨日의 底價가 因而底入이되고 말것인가 此에는 斷言을 付할수업스나 그러나 日本內地의 天候가 恢復된다면 又復一落을 보이지안흘가하는 商談도 업지아니하다

朝取期米取組

◇當限 賣方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主要賣買

【大阪電話】 今朝堂島의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東京側 地場利喰 中東側
買方=山田中貞 灘濱側 地場強氣
地場軟派

各地正米

京城引返
賣方의 沈默으로 賣買는 업스나 當限反撥으로 三十錢高唱이엇다
㊂三等 二八、八〇 四等 二八、五〇 一等白米 二二、〇〇

仁川反撥
淸算期近의 反撥에 唱價三十錢의 訂正高가 되엇다 約物도 現在론 傍觀狀態이다
㊂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五〇
〇一等白米二二、三〇

釜山續軟
定期의 少反撥이 잇섯스나 人氣不變으로 市勢는 前價보담 十錢低로 賣買는 比較的 잘 進捗된 模樣이다
㊂三等二九、五〇 四等二九、二〇
〇一等白米 二二、九六

大邱一息
定期引返에 人氣小康에 回復하엿스나 賣方의 傍觀으로 賣買는 全혀 不成이라 休業同樣의 場面을 繼續中이다
㊂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四〇
〇一等白米 二二、〇五

群山奔落
期米當限暴落에 現物市勢도 急激히 低下하야 一擧五十錢奔落을 演하엿다 여기

木浦保合
淸算期近의 模様에 蒐集漸況은 今夕發表의 佛國貨幣 下數字付로 市況이 不振하야 秦模樣을 繼續中이다
㊂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〇一等白米 二三、〇〇

今日財界 (廿六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朝取 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ゴムFAQ [illegible]

株式 廿六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定期賣買高◆ ◆大阪長期◆ ◆大短短期氣配◆
[illegible]

期米 廿六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金融 廿六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穀 廿六日

◆京城雜穀◆ ◆仁川正米大廳◆ ◆京城正米◆
[illegible]

商品 廿六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輸入船舶價◆ ◆錦林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期麥◆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石金 分析 買賣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〇一番地 電話本局②三三一六番 振替京城一一五一四番

仁川本町 米 株 京城黃金町 玉 柳來恒取引店

京城府明治町 京城德力 白金.銀.金 德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元拂

米 仁川 鹿島商店 光 株 京城 金益證券 株式會社

昭和十一年九月二十日附朝鮮日報紙上에 漢城銀行平壤支店長趙銘夏氏가 運送店을經營한다고 記載된것은 事實無根일뿐만아니라 平壤運送組合에서 漢銀과 去來치안키로決議하엿다는것도 全然虛說인바 右는 同業者某가 個人感情으로 行한 所致임으로 弊社로서는 同氏에 對하야 十分未安할뿐만아니라 弊社에 關한 虛僞의 記事는 弊社에도 迷惑됨이 不尠함으로 此事實을 紙上에 謹表하나이다
昭和十一年九月二十一日
平壤㊆鮮滿運輸合資會社 白